민족운동의 방향, 1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8.9.

普天敎와 物産奬勵運動

안 후 상*

<목차>

Ⅰ. 서론
Ⅱ. 일제하 보천교운동
1. 보천교란
2. 일제의 보천교 탄압의 실체
3. 보천교의 반저항성과 '대리통치설'
4. 교운동의 소멸과 그 의미
Ⅲ. 물산장려운동과 보천교운동
1. 조선물산장려운동
2. 물산장려운동의 발생 배경과 그 이념
3. 물산장려운동과 보천교
4. 보천교운동의 계몽주의적 성향
Ⅳ. 결론

Ⅰ. 서 론

普天敎 本所가 있던 全北 井邑에서 태어나 자란 필자는 보천교에 대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전해 들었다. 아래는 당시 敎人이였거 이나 제3자의 傳言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 보천교의 月谷은 東學運動을 하다가 姜甑山을 만났고, 강증산 사후 교주가 되어 조선의 天子가 되고자 하였다. 당시 車天子敎[1] 를 믿었던 이들이 6백만명이나 되었으며,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정읍

* 보조사상연구원

1) 보천교의 다른 속칭. 이외, 훔치교 · 선도교 · 천자교라고도 불렸다.

大興里 敎本所에는 서울의 경복궁에 버금가는 大闕[2] 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세력이 하늘을 찌를 듯해, 조선총독이 찾아와 차월곡을 면담하고 돌아갈 정도였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월곡이 日帝를 대신할 '조선의 통치자'로 일본 천황의 지목을 받았다고 이해하였다. 한편, 재력가들은 보천교가 '時國'을 건설해 車王朝를 이미 열었다며 家産과 함께 교본소로 속속 들어왔다. 교본소에 행사가 있는 날이면 백만이 넘는 인파가 구름처럼 몰렸고, 聖殿인 '十一殿' 건축에 쓰일 나무는 백두산 양증산에서 수년 간 채취한 거목들로, 역시 수년에 걸쳐 운반하였다. 교본소에는 조선의 유력자들이 수시로 방문하였는데, 총독부 간부들은 물론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새정부의 조각에 참여하고자 入敎한 자도 후에 교단과 거리를 두고 교운동을 비판하는 자도 있었다. 김철수나 장덕수, 최팔용 등과 조만식이나 한규숙, 백관수 등도 비밀리에 교단과 관계하였다. 기미독립만세운동을 물밑에서 주도했던 임규나 상해 밀정 이중성은 아예 입교하였다. 교세가 급격히 확산되자, 일제는 경찰 주재소 분소를 교본소 내에 설치하는 등, 물리적 탄압과 회유책을 병행해가며 교단을 무력화시켜 나갔다.

이처럼 황당하게만 들리는 傳言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다. 필자가 3차 조선공산당과 관련한 인물 金綴洙의 녹취된 구술을 접하면서, '月谷[3] 으로부터 수만원을 받아 자금으로 썼다'라는 구술 내용 확인을 위해 월곡의 친자인 龍南과 鳳南[4]를 찾게 되면서였다. 그리고 당시 敎人과 정읍

2) 1970년대만 하여도 보천교 본소 자리였던 대흥리에는 성벽처럼 생긴 석축이 수백미터 늘어서 있었고, 그 주위로 거대한 주춧돌 수십 개가 널려 있었다. 그 틈새로 수많은 玉石이 묻혀 있었는데, 과거 대궐터였다는 傳言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교본소에는 크고 작은 건축물 총 360동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동아일보 1922. 12.24)

3) 보천교 창교주 車京石(1880-1936)의 호. 본명은 輪洪.

4) 용남은 창교주인 월곡의 次男으로, 호는 井岩. 월곡 타계 당시 16세. 봉남은 월곡의 삼남으로, 당호가 混源堂. 장남은 熙南으로, 1926년에 病死하였다. 古典을 익히며 후학 양성에 전념하고 있는 이들은 갓과 도포를 지금까지도 고집하고 있다. 앞의 2인의 형제 외 월곡의 친자들은 여럿 있다. 모두가 학교에서 또는

의 현존한 여러 분의 구술을 들으면서 '보천교 연구'는 시작되었다.[5] 그리고 이들의 전언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의 일간지나 잡지에 나타난 보천교 관련 기사를 파악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제하 보천교운동 연구 - 교주 차경석의 정치적 성향을 중심으로->[6]와 <보천교운동 연구>[7] 가 발표되었다. 이 후로 교관련 '공판 자료'와 '조선총독부와 경찰의 비밀보고서' 등을 발굴하여 몇 편의 보천교 관련 글을 발표[8] 하면서, 앞의 전언이 황당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단지, 曺晩植(또는 趙晩植)과 物産奬勵運動, 그리고 민족을 생각하는 청년지식인들과의 관련 내용의 일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밀리에 래왕하여 교간부(필자주 : 당시 조만식은 보천교 修好司長(외교담당간부)을 지냈다고 한다.)가 된 경우는 조만식 말고도, 한규숙 · 장덕수 · 최팔용 · 송진우 · 백관수 · 조병욱 · 신석우 · 김철수, 또 다른 김철수 · 안재홍 · 백남훈 · 설태희 · 임씨, 허씨 등 여타 조선의 지도급 인사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교인이 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조만식과 한규숙이 일경에 잡히게 된 것은 권총 2자루를 소지한 상해 밀정의 밀고 때문이었다.'[9]

위의 내용에 나타난 인물들의 공통적 특징은 1920년대 실력양성운동과 밀접히 관련 있는 인물들이어서, 그 궁금증은 더해만 갔다. 그러던 얼마 전, 연구 과제 <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그 정책의 실상과 자

서당을 개설해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차남 정암은 周易의 대해석가로 알려져 있다.

5) 구술한 이들은 손장현, 최종섭, 김재욱, 김세진, 안영승, 강용수, 강석환 등이다. 특히, 강용수는 당시 보천교 본소 주재형사 강재령의 친자이기도 하다.

6) ≪남민≫제4,5집(서해문집, 1992, 1995).

7) 성균관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성대경 지도), 1992.

8) <제주법정사무오항일항쟁연구>(≪종교학연구≫15, 서울대종교학연구회, 1996). <일제하 보천교 탄압사례> (≪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 -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고려한림원, 1997).

9) 차용남 면담(1991. 1.21), 차봉남 면담(1991. 5.10), 閔英鎬 · 閔泳川 父子 면담(1990. 8.23), 손장현 외 4인 면담(1991. 11. 12).

료->(1996년) '보천교 자료편'을 정리하다가 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이 관련돼 있다는 새로운 史實을 접하게 되었다. 앞의 傳言 내용을 대체로 확인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필자의 보천교 연구 목적 가운데 하나인 '보천교운동의 민족해방운동사 편입'에 주요한 단서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분분하게 이뤄져 온 물산장려운동과 관련한 연구 영역의 확산을 바라다 볼 수 있다는 데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천교운동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운동의 성향과 성격을 밝히고, 이로써 당시 민족해방운동의 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실력양성운동 특히 물산장려운동에 보천교의 개입 여부나, 개입을 했다면 그에 따른 배경도 함께 서술하고자 한다. 즉, 보천교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의 의의를 새롭게 추출해 낸다기보다는 두 운동의 전반을 소개하는 가운데 두 운동체 간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가설을 제기해, 앞으로의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로, 당시의 객관적 자료를 전면이 내세워 앞의 전언을 확인해가는 방법으로 본고를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의 쟁점 전개에 앞서 보천교운동을 소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①이 분야가 일반 연구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물산장려운동과 관련해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 曺晩植 또는 趙晩植에 관해서는 관련 전언보다는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토록 하는 등, 아직까지 소개된 적없는 관련 내용은 가급적 각주를 통해서라도 소개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면, 그 동안 종교학이나 종교사, 특히 '신흥종교 연구'라는 측면에서 보천교가 다뤄져 온 기존 연구 유형에서 탈피해 민족운동사 측면에서도 보천교가 연구되어져야 한다는 일종의 문제 제기라는 점이다.

Ⅱ. 日帝下 보천교운동

日帝下 보천교에 대한 시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 첫째, 似而非宗敎나 類似宗敎의 행위로 보천교운동을 인식하는 경향이다.[11] 이는 신흥종교 현상으로 인식, 신흥종교 실태 파악의 일환으로

---

10) 보천교에 대한 연구 경향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 <보천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종교사연구≫제6집, 한국종교사학회, 1998)가 있다.

11) 유사종교, 사이비종교, 사교라는 용어는 일제가 19세기 근대화 하는 과정에서 만든 신종어이다. 異端의 개념 밖에 없는 동양의 淫祀邪敎나 슈도-릴리존(pseudo-religion)과는 다른 개념으로, 당시 공인 종교가 아닌 민족종교를 규정할 때 썼던 것이다. 하지만, 종교 현상과 유사 현상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유사종교나 사이비종교의 개념들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다.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를 말살하기 위한 총독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것이다. 근대화를 서두르던 명치 정부는 근대화의 모델을 서양 사회에서 찾았으며, 그 정신적 대안은 계몽주의였다. 이런 입장에서, 무엇이든 비합리적인 것은 근대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저해 요인은 근대화의 달성을 위해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는 명치 정부의 논리는 이중적이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자생한 신종교들은 이른바 교파신도라는 이름으로 신도의 범주에 등록하여 공인한 반면, 같은 시기 한국에서 자생한 신종교, 이른바 민족종교는 끝까지 공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유사종교나 사이비종교 또는 사교라고 규정, 탄압하였다. 이는 일제의 수사 개념이었다. 이처럼 민족종교를 이해하는 개념이나 관행을 지금까지도 답습하는 데에는 몇 가지 내부 요인이 있다. ①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지성을 주도해 온 이른바 發展神話의 논리이다. 발전신화는 합리적인 것을 찬양하고 비합리적인 것을 저주한다. 서양의 근대 문화가 합리성의 대상이고, 이를 모방한 것이 근대화 과정이었다. 근대화(modernization)는 곧 서양화(Weste-rnization)의 다른 이름이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후예인 서양 근대 문화는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이며, 반종교적이다. 과학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종교를 구시대 잔재로 여기는 성향이 있다. 이것이 발전신화의 주류이다. 발전신화를 수용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종교를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여기는 태도가 자리잡게 되었다. 일제는 이 발전신화의 논리를 식민지 문화정책에 효과적으로 위장, 전용했으며, 우리는 그 위장을 아직까지 간파하지 못한 것이다. ②발전의 모델인 서양을 모방하다보니 서양의 종교는 합리적이고 그 외의 종교는 비합리적이라는 태도다. 이러한 태도는 자유당 정권 당시 正神과 假神을 가르는 기준을 발표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일어났다.(동아일보 1959. 1.19, 1959. 3.4.) 이 기준은 사이비종교를 가름하기 위하여 제시된 사례였다. 이런 웃지 못할 태도가 아직까지

조사, 연구되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난다.[12]

둘째, 식민통치기 수난사의 하나로 '일제의 보천교 탄압'을 사례로 제시하는 경향이다. 더 나아가 보천교 현상을 민족종교운동으로, 보천교를 민족종교로 보는 시각이다. 여기에는 보천교운동이 식민지 상황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 했다는, 약간의 부정적인 시각이 깔려 있다. 예컨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보천교가 철저히 말려들 수밖에 없었다는 관점이다.[13]

셋째, 두 번째 경향을 야기했던 관점으로, 적어도 1925년 이전의 보천교의 활동을 국권회복운동 또는 민족해방운동으로 보는 경향이다. 이는 보천교운동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권회복을 도모했다는 필자의 견해이기도 하다.[14]

앞의 세 번째 경향, 즉 보천교운동을 민족해방운동으로 보는 경향에는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 당시 일간지와 월간지에 나타난 보천교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보면, 적어도 1925년 이전의 보천교의 활동은 국권회복을 위한 운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한 예로, 조선일보사에서 발간한 ≪조서일보 항일기사 색인 -1920~1940-≫[15]에 나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 ③이러한 태도는 유교, 불교, 기독교와 같은 세력을 지닌 종교는 사회 발전에 동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지 못한 군소 종교는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는 태도로 전환되어 갔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태도가 모두 사이비 종교를 가름할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 성립과 운영은 그 자체가 근대 사회의 원리에 부합되지도 않는다. (윤이흠,≪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 -그 정책의 실상과 자료≫ (고려한림원, 1997).에서 요약.)

12) 村山智順(編)의 ≪朝鮮의 類似宗教≫, ≪朝鮮의 占卜과 豫言≫ 등이 대표적이다. 신흥종교의 하나로 파악해 정리한 이강오의 자료 <보천교>(≪전북대논문집≫ 제8집, 1966)는 앞의 村山智順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13) 윤이흠의 앞의 책이 대표적이다.

14) 보천교운동을 민족해방운동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은 필자에 의해서였다.

15) 조선일보사, 1986, 552~555쪽. 참고로 보천교의 항일 기사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타난 항일 관련 기사 건수의 통계가 그것이다.

종교명	종교일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	보천교 (아래는 교의 異名)			청림교	기타종교
							보천교	태을교	흠치교		
항일기사건수	6	23	2	18	15	32	83	9	55	17	11
합계	6	23	2	18	15	32	147 (차경석 부분은 제외)			17	11

표1. '종교일반'과 '기타종교'란에는 보천교와 같은 계열인 무극대도나 태극도의 항일 기사 건수가 많다.

위의 통계는 당시 여느 종교나 종파보다도 보천교가 국권 문제에 깊이 관여하였다는 하나의 근거이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공훈록≫(제6권)에 나타난 통계이다. 월곡을 위시한 당시 70명의 보천교 관련자들이 '독립운동에 참가한 자'라고 표기돼 있다. 통계의 근거는 김정명의 지은 책과 당시 관련한 공판 자료 등이다.[16]

일제하 자칭 6백만 민중을 조직했다는 普天教. 1923년 조선의 인구는 ,700만명 정도였다고 한다. 교도가 6백만이라니, 과장도 여간 과장이 아

년도	1921	1923	1924	1925	1926	1929	1935	1936	1937
건수	9	6	13	95	6	13	1	1	3

위 기사는 일제에 대한 저항 조직이 발각되었거나 실제 저항한 건수를 말한다. 그 건수가 1924,5년과 1929년에 두드러졌음은 보천교운동의 변화와 양상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근거이기도 하다.

6) ≪독립유공자공훈록≫(제6권) 외, 현 제주보훈지청 이대수가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독립유공자공훈록≫(제6권)의 관련 내용 역시, 이대수가 발췌하여 필자에게 보내 온 것이다. 명단을 선정하는 데는 김정명의 지은 책과 당시 공판 판결문 등을 참고로 하였다고 이대수는 전한다. 불교의 승려와 보천교도에 의한 제주에서 발생한 항일봉기 관련 인물들 역시 '독립유공자'로 최근 추서되었는데, 여기에는 이대수의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후손이 남아 있지 않은 대다수의 관련자는 추서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닌 듯하다. 그러나 당시 관헌이나 언론의 자료에 의하면 족히 일이백만은 돼 보인다.[17] 식민 치하에 쪼들려 살으며 설움받아야 했던 민초들의 절박함을 아우르고 담아낸 거대한 조직 보천교.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당시 민족종교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東學(天道敎)과 보천교와의 관계만 보아도, 그 의미의 一端을 엿볼 수가 있다.[18]

다음은 민족해방운동으로 볼 수 있는 보천교의 주요 사건 사례이다.

17) 당시 조선의 인구에 관해서는 大塚常三郎, <朝鮮의 地方制度 及 社會事業 竝 敎育·宗敎의 現狀>(≪朝鮮≫8, 朝鮮總督府 官房庶務部 調査課, 1923年 5~8月; 이하 朝鮮), 15쪽 참조.
보천교의 조직은 방주제다. 敎正과 敎領의 12方主와 24방위의 24胞主, 24節候의 24運主 이렇게 해서 24방주가 되는 것이다. 1920년 4월에 위의 60방주제를 확대하니, 각 방주 밑에 6任을 두고, 6任을 통괄하는 대표를 두었다. 6任에게 다시 12인의 任職을 두고 12任 밑에 8任, 8任 밑에 15任을 선임하였으니, 포교 책임자만 합해도 55만명이 된다.(이영호(편), ≪普天敎沿革史≫(上) (보천교중앙총정원·협정원, 1948 ; 이하 普天敎沿革史), 10전~13후 참조) 책임자 55만명당 100명의 평교인을 확보했을 때 교인 수는 약 600만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산술적인 계산법으로는 당시 그 수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 교세는 분명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교단의 규모에 관해서는 '집회에 쓰일 식표만 45만장'이라든지(동아일보 1922. 9.19), '충북 제천의 2개 면에 교도가 60여 호나 된다'라든지(조선일보 1925. 5.12(석)), '함경남도 고원군의 600여 호가 보천교도'라든지(조선일보 1925. 11.19(석)), '기백만이라는 미신 단체 형성'이라고 표했다든지(개벽 38호, 1923. 8.1.), 29-36쪽) 하는 등의 표현은 당시 교도 수가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 밖의 '장봉선(편)의 ≪정읍군지≫(1937), 19-20쪽.'과 '조선일보 1925. 3.29, 6.15.' 자에도 교세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보천교측 자료에 교도수가 육백만 또는 수백만이라고 언급한 예는 매우 많다.(보광 4호, 1923. 10.25, 5쪽 ; <창간사>(보광 1호, 1923. 10.25.), 3쪽 ; 보광 4호, 1924. 3.27, 8쪽 등 참조.)
당시 경찰의 秘文에서도 교세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음은 경상북도 경찰부에서 파악한 도내 유사종교단체의 현황이다.(≪暴徒史編輯資料高等警察要史≫, 경상북도경찰부, 1935), 76-77쪽 참조.)

1. 普天敎란.

보천교는 1910년대, 본명이 輪洪(윤홍), 寬淳(관순)이라고도 하는 車京石(호가 月谷; 1880~1936. 지금의 전북 고창군 흥덕면 生)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60方主 조직(초기 24방주제)을 말한다. 그 조직의 목적이 뚜렷하고, 그 활동 역시 식민지 사회에 적잖은 파급을 몰고왔다는 데서 '보천교운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敎名	信徒數		募金額 (円)		布敎所數
	1928년	1929년	1928년	1929년	
普天敎	4,392	4,292	5,280円	3,463円	眞正院 1, 正敎部 7
無極大道敎	2,099	1,828	4,130	9,161	機關所 1
天道敎	290	325	740	144	宗理院 7
上帝敎	511	373	117	18	支部 9
侍天敎	538	548	150	-	支部 2
東學敎	1,348	1,445	-	-	支部 1
靑林敎	143	161	12	15	支部 2
孔子敎	30	20	-	-	說敎所 1
計	9,352	8,992	10,429	12,802	30

1928,9년 경 보천교의 교세는 쇠락할대로 쇠락한 상태였는 데도, 천도교나 기타 동학계열을 모두 합친 것보다 교도수는 두 배, 모금액수는 30여 배나 더 많다.(위의 무극대도교는 보천교 계열의 교단이다.)
이러던 교세는 1934년 8월 현재, 유사종교로 분류된 동학계 교도수 116,748명에 비해 흠치교계(보천교) 교도수는 20,499명으로 폭락한다.(村山智順, <朝鮮의 類似宗敎>(朝鮮 1935年 4月), 88쪽) 1920년대 후반 이후 보천교의 교세는 급격히 약화된 상태이며, 1930년대 교세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다. 그러나 1937년 경에도 교본소 대흥리에는 5,6백호의 인가가 집단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장봉선(편)의 앞의 책, 19-20쪽.)

3) 보천교가 물산장려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1923년 4월, 경성 천도교당에서 보천교에 대한 성토연설이 시작된다.(보광 4, 1924. 3.27, 89-90쪽.) 이것이 보천교와 천도교측과의 갈등의 단초가 되었다.

지금의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일명 大興里에 敎本所를 두고 조직을 확대하니 '국권회복' 과 '천자등극'을 염원하는 '太乙呪' 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주송수련은 동학농민전쟁과 한일합방 등으로 갈가리 찢기워진 민심을 달래고 통합하는 지대한 효과를 낳았으니, 이에 놀란 것은 일제였다. 지난 동학농민전쟁 당시 수천 수만의 농민군이 외우며 일심으로 단결하던 그 侍天呪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1922년,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구속된 60방주의 한 사람인 이상호를 극력 회유하였다. 조직의 정체를 명확히 하게 되면 官의 보호는 물론 종교로도 행세할 수 있다며 조직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조직의 명칭을 '普天敎'로의 등록은 하나의 교단으로 세상에 공고하게 된 셈이되었다.[19] 따라서 보천교라는 이름은 이때부터 불리워지게 되었으며, 이 전에는 '태을교'나 '훔치교' 또는 '仙道敎'라 불리웠다.

교단 공개와 함께 敎憲 [20] 제정은 교의 비밀결사 형태의 운동이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 기록이나 敎典을 거부하던 종전과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은 공인된 종교 단체로 인정 받기를 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보천교 조직 해체를 목표로 하는 일제의 집요하고도 교활한 탄압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19) 보천교연혁사, 27후-28후 참조. 이 자료에는, 경기도 경찰부 藤本 고등과장이 구속된 교간부 이상호을 상대로 회유한 즉슨, "종교를 선포하는 사람인데 어찌 함으로 가만히 숨어 포교하느냐", "…종교는 동서를 물론하고 누가 감히 사랑하지 아니하리요." 등으로 설득, 조직의 공개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1915년 8월 15일에 공포한 '조선총독부령 제83호 포교규칙'에는 공인 종교와 유사종교를 구분해 놓았고, 유사종교의 규제를 법제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위의 조직 공개 권유는 설득력이 없었다.

20) 보천교 敎憲 外 補則, 總正院規定, 總領院規定, 綱宣會規程, 普評會規定, 眞正院規定, 參正院規程, 正敎部規程, 敎典 등으로 돼 있다.(<보천교 교헌> (보광 2호, 1923. 12.6.), 40쪽-67쪽 참조.) 敎憲은 교간부 회의에서 제정되었고, 1923년 8월 15일에 발포하였다.(<교헌 발포에 대하여> (보광 3호, 1924. 1.27.), 2쪽 참조.)

2. 일제의 보천교 탄압의 실체

일제의 민족종교[21] 탄압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외곽·괴뢰 단체를 통한 교단 조직의 분열을 꾀하는 정책이다. 일제의 조정을 받는 괴뢰 단체나 친일 외곽 단체를 기존 교단과 대립하게 하여 종교적 구심력을 약화시키는 유형이다. 둘째, 이념적 내부 분열을 획책, 종교적인 통합력을 깨트려 교단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다. 셋째, 민족 감정으로부터의 고립을 꾀해 조직의 와해를 시도하는 정책이다. 넷째, 반사회적 단체로 매도하여 교단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나가는 정책이다. 다섯째는 군사적 제압이다.[22]

일제의 보천교 탄압의 유형은 위의 둘째, 셋째, 넷째이다.

21) 종교학에서는 민족주의를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보고 민족주의 자체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와 민족주의의 공통된 특성으로 ①종교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는 보편적 현상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②종교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에 대한 평가도 양면적이다.(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집문당, 1992), 25-29쪽.) 전근대적 국가 개념이 아닌, 한국어가 지닌 '민족'이란 단일혈연공동체, 이른바 민족주의란 단일민족의식이라는 개념을 기본 축으로 삼는다. 따라서 한국 민족주의는 ①단일혈연공동체 ②한반도라는 한정된 지역공동체 ③신석기문화 이후의 장구한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 ④위의 세 요인이 복합된 의미에서 이른바 단일운명공동체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민족종교' 용어란 따라서 한민족의 단일운명공동체 의식이 포함된 종교 개념으로, 천도교·대종교·보천교·증산교·원불교·한얼교·정역계통 군소 종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종교의 공통점은 ①한국의 자생종교 ②민족공동체 의식 ③민족 고유 얼의 계발을 기도 ④고난으로부터 해방된 민족의 영광 약속 등이다.(윤이흠,≪한국종교연구≫1권 (집문당, 1991), 285-287쪽 참조.)

일제하 개벽사상을 바탕한 민족종교의 특성과 의미로는 ①현실적으로 보국안민을 주창하고 ②항일운동의 정신적 주체가 되었으며 ③민족주체의식의 사회적 실체로 ④민족 개벽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곧 민족주체의식이요 독립의지였던 것이다. ⑤이에, 조선총독부는 민족종교를 조선 민족정기의 온상이며 항일 정신의 훈련 단체로 간주했다. ⑥우리 민족을 민족애로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며, ⑦민족문화 주체성에 입각한 민족애를 신념 체계로 표현하였다.(윤이흠의 위의 책 참조)

22) 윤이흠의 앞의 책, 75-85쪽 참조.

기미독립만세운동을 전후해서 일제는 보천교인에 대해 반란죄나 보안법을 적용, 시국 사상범으로 몰아 구속, 고문하는 등의 물리력을 사용하였으나, 교단의 실체인 60方主 조직은 좀체 드러나지 않았다. 방주 조직은 지금의 상향식(피라미드식) 점조직과 같은 형태로, 여간 그 윤곽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던 조직이 백일 하에 드러났으니, 일제의 정교한 탄압책이 실효를 거뒀음을 의미한다.

1924년경, 일제는 교단 내 보수 대 혁신 세력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해 내부의 힘을 소진시켰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普天教革新運動의 대두는 내분을 격화시켜, 조직의 결속력을 현저히 떨어뜨렸다. 이어, 시국대동단의 결성을 조장 내지는 방조함으로서, 민족 감정으로부터 교운동의 고립을 획책해 나갔다. 이외, 보천교를 미신 및 邪教集團로도 매도하여, 근대교육을 받은 자나 기독교인들로부터 질타와 외면을 받게 하였으며, 반인륜적이고도 비민족적인 집단으로 매도하여 민심 이반을 가져오게 하였다. 조직을 민중으로부터 괴리시키려 하였다는 점 등은, 앞의 다섯 가지 탄압 유형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23]

일제의 이러한 책략에 철저히 말려든 또 다른 당사자는 당시 언론이었다. '공인되지 않은 종교는 유사종교이며 유사종교는 곧 사교로, 이 사교는 종교적 집회와 헌금을 금지해야 한다. 동시에 종교 운동을 심전 개발과 같은 새로운 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24] 는 당시 언론의 보도 내용은 조선총독부의 의도와 판단, 그리고 그들의 정책과 의기 투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당시 언론의 민족종교에 대한 시각이 조선총독부의 정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서,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의한 민족종교, 특히 보천교에 대한 무차별적 비난은 특수한 시기의 언론이 보여준 가장 극명하고 적나라한 자기 모순에 불과하다.[25] 조선일보사의

23) 위의 책 참조.
24) 조선일보 1936. 6.14(석간)
25) 윤이흠의 앞의 책 참조. 동아일보의 대 보천교 비난에 보천교 측의 민감한 반

≪조선일보 항일기사 색인 -1920~1940-≫이 당시 기성 및 신흥 종교를 모두 포괄한 항일 기사 건수에 있어서 보천교가 월등히 많음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언론의 자기 모순은 항일과 전통적인 민족종교의 행위를 분간 못 한 데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 본란에서는 일제의 일련의 탄압 정책에 말려든 보천교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일제의 농간에 속수무책 당하지만은 않았다는 몇몇 근거들을 제시하고,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천교의 일제에 대한 저항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26] 이는 보천교운동의 성격 규정은 물론, 물산장려운동과의 관련 배경을 설명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항거의 주요 사례는 이미 발표된 필자의 졸고를 요약하며,[27] 새로운 史實은 관련 자료와 함께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1)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봉기

기미독립만세운동(1919) 직전인 1918년 10월에 지금의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에서 '항일 봉기'가 발생하였다. 한라산 중턱의 法井寺라는 곳에 근거지를 둔 봉기대 약 400여 명은 중문리로 내려가 주재소를 불태우고 일관헌들을 납치하였다. 불교계 승려와 보천교 24방주 조직이 깊이 관여한 이 사건은 한일합방 이후 처음 있는 조직적인 반일 무장봉기였다. 일제는 島內에 대규모 군대를 상륙시켜 일대 소탕을 벌이니, 조직원 수백명이 체포되었고, 보천교의 24방주 조직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월곡 역시, 이 때부터 수배의 긴 장정에 오르게 되었으며, 교인 수천명이 구

응을 일경은 내심 우려하며, 관련 단체를 내사한다는 내용의 비밀 문건도 있다. (<보천교도 동아일보 증자>(京西高秘 제4257호, 1930. 7.25) 참조.)
26) 일제하 일반적인 범죄가 아닌 경우의 탄압은 곧 항거다. 말하자면, 식민지 하에 시국 관련 치안유지법이나 보안법 또는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 형사 사건은 항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7) 본란의 요략 내용에 대한 출처는 번번히 표기하지 않겠다.

속되어 옥사한 자가 속출하였다. 관헌에 체포된 자만 66명, 수형자 31명의 총 선고 형량은 87년 6개월, 벌금형(30원 씩)을 받은 사람이 15명, 옥사자가 5명이나 되는 결코 작지 않은 사건이었다. 단일 항거로는 17명이 투옥된 불교의 卍黨 사건을 능가하며, 1919년 12월의 상해 임시정부의 咸北 연통제 발각으로 54명이 체포된 사건과 비슷하다. 더군다나, 기미독립만세 사건 주모자(독립선언서 낭독에 관여하였던 인물 중심)로서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이 48명이었는데 비해, 무오년 법정사 사건은 관련자 46명이 징역형(31명)과 벌금형(15명)으로 처벌된 것을 감안한다면, 단일 사건으로는 기미독립만세사건에 버금가는 항일 봉기였다는 것이다.[28]

2) 1920년 초반의 검거선풍과 고흥교도 피살 사건

제주도 봉기의 실체가 채 파악되기도 전인 1919년 3월, 동학계열의 주도로 '기미독립만세운동'이 발발하였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일제는 사건 이후 곧바로 재건된 60방주 조직의 해체를 목표로 탄압을 시도하였다. 方主 조직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단행된 이후, 수천명의 교인이 구금, 구타, 처벌 당하는 일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각 일간지에서는 '당국에서는 기미독립만세운동의 재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하였다.[29]

충남의 한 간부 김홍규의 집 마루 밑에서 지폐와 은화를 합해 약 10

28) ≪친일불교론≫의 저자 임혜봉의 별도의 자료 참고. 관련 논문으로는, 안후상, <제주법정사 무오항일항쟁 연구>(≪종교학연구≫15집). 앞의 졸고를 작성할 때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검경 기록으로는 '<제주도 소요사건>(≪暴徒史編輯資料高等警察要史 -日帝警察極秘本影印版-≫), 265-266쪽. ; ≪思想月報≫제2권 제5호(고등검사국사상부, 1932), 6~14쪽.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검사국, ≪刑事事件簿≫제29호(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소, 1918). ; 광주지방법원제주지청, ≪受刑人名簿≫(정부기록보존소부산지소, 1918.)' 등이며, ≪朝光≫(1938. 10), 185쪽에도 본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29) 동아일보 1920. 6.3, 1921. 4.26, 4.30, 5.13, 5.14, 8.6, 8.25, 10.7, 10.29, 10.30. ; 조선일보 1921. 4.26, 2.19, 4.12, 5.19, 6.6.

만 7천여 원을 넣은 항아리가 발각되었다. 일경은 압수와 함께 조사를 착수하여, 간부 최도홍·육원익·고편상 등 수십명을 구속하여 반란죄로 처벌하였다. 그리고 그 돈항아리와 관련해 일경은 상해 임시정부와 연계된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교도들로부터 모금한 자금이라고 밝혔다.[30] 이외, 강원도 간부 이주범도 같은 죄목으로 체포, 구금되었다. 특히, 강원도 양양의 간부 김홍식은 독립단을 조직하여 봉기를 꾀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다.[31]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고문, 치사로 이어졌고, 이에 조직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비밀 집회를 통하여 조직 운동, 즉 60방주 조직의 재건을 통한 국권회복 운동은 더욱 공고하게 이루어졌다.[32]

일경에 의해 보천교 조직원이 사살된 사건은 1922년 전남 고흥에서도 발생하였다. 교집회를 일경이 해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교인 한 명이 죽고 나머지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에, 교인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하자 오히려 이들을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해버렸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문제화되었다.[33]

문제는 언론의 태도였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의 집회 해산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미신, 사교 집단의 우매한 종교 행위가 더 큰 문제라고 논조의 흐름을 바꿔버린 것이다. 이는 물리력에 한계를 느낀 일제에 의해 미신, 사교 집단으로 방주 조직이 매도되어, 민심 이반이 이뤄졌다는 반증인 것이다.

30) 동아일보 1921. 10.29.

31) 위 신문 1921. 10.30.

32) 이성영의 ≪증산교사≫에는 이 사건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기미년 가을에 李成英이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포교운동을 일으키니 교세가 크게 일어나, 이듬 庚申年까지 경상북도에만도 10여 만명에 달하였다. 1920년 겨울에 청송군 일본경찰서에서는 소위 制令第7號 違反 혐의로 교도 3천여 명을 검거하여 수십명을 고문 치사케 하고 7백여 명을 기소함에 도망다닌 자가 3만여 명이나 되었다.'(이성영, ≪증산교사≫(증산교본부, 1977), 88-89쪽.)

33) 동아일보 1922. 8.21, 8.25. ; 조선일보 1923. 5.1.

3) 독립운동 자금으로 교금을 지원한 사례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3차 조선공산당과 관련한 金綴洙와 당시 동지였던 여운형·장덕수·최팔용 등은 보천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기미독립만세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林圭 역시 보천교의 자금을 받았다고 한다.[34] 趙晩植(曺晩植과는 다른 인물)은 한때 보천교 본소에 거주하면서 한규숙·정봉규·정상택 등과 교운동에 동참하다가 구속되었다. 이외, 송진우와 안재홍·신석우·변영채 등도 교단과의 교류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구술이 있다. (아래 인용문에서, '( )' 는 필자의 질문이거나 필자주이며, '---' 은 내용이 생략된 것임.)

> 철수(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경력이 있는 김철수) 씨도 부친께 3만원, 2만원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이범재(호가 구당) 화실에서,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 내게 말했다. 또한, 철수 씨가 당질녀에게 '(차교주께서) 노금을 필금해주었다.'고 했다. 이성찬 선생도 있었다. --- 고당 조만식과 고하 송진우, 안재홍 등도 비밀리에 교본소에 다녔다. 군자금 관계도 목포의 김해배 씨가 보천교에서 돈을 받아 중국 임시정부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해줬다. 신석우, 변영채 등도 교본소를 자주 찾았다. (필자가 당시에 이 돈이 김철수 증언에 나오는 그 돈이 아닌가요, 하자) 송진우, 장덕수가 받은 돈은 별도의 돈이다. 철수 씨가 직접 받은 돈도 또 별도이다. --- 이런 군자금은 늘 극비였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 한다. --- 나는 그 당사자의 얘기를 직접 들어 안다. --- 당시 왜놈 형사가 교본소에 늘상 상주했다. 나 어렸을 때도 그랬다. 그런데 어디 함부로 군자금이 어떻고 했겠는가. 한때는 왜놈 경찰이 사오백명씩 총을 들이대고 와서 모든 것을 차압해버리는 등 그때는 정말 살벌했다. --- 조만식은 권총 사건으로 옥고를 치뤘으나 --- 조만식은 당시 보천교 간부였다. 외교담당차석이었다. 당시 그가 서대문형무소에 형을 받고 풀려나 1여 년 간 교본소에 있다가 군산을 통해 상해로 들어갔다. 다시 상해에서 귀국해 교본소로 왔다가 한달 여 만에 잡힌 것이다. 이때 권총 서너자루가 발견되고, 그래서 김정곤, 한규숙 등이 고문을 당했다. 조만식 뿐 아니라 송진우·안재홍·신석우·홍성렬·안재홍·김철수·백남훈·이씨·허씨·조병욱·신석우·홍성렬·안재홍·김철수·백남훈·이씨·허씨·변형채·정순정 등이 다 교인이었다. 이들은 비밀리에 출입하였다. 조만식만 드러나 다시 붙잡혔다. (필자가 이러한 자금 내역을 왜 보천교연혁사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느냐고 묻자) 그때는 연혁사를 記해 놓고 '교인들을 다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교의 입장이었고, 따라서 연혁사는 그런 대목들이 대부분 빠져 있다. 또, 당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관련자들이 죽을 수도 있었다. --- [35]

위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호가 고당인 조만식과 권총 사건 관련인 조만식의 문제이다. 아직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권총 사건과 관련한 조만식은 보천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로 파악된다. 앞의 구술에 나타난 인물 면면을 살펴 볼 때 당시 실력양성운동과 보천교가 어떤 관련을 맺고 일정한 역할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 질 : 보천교에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었다는데….
>
> 답 : 3.1운동 당시 48인의 하나인 林圭라는 자가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천교로부터 교금 5만원을 받았다. 임규는 금마 출신이다. 원래 임규의 일가는 금마 '아전' 출신이었다. 東學과 관련을 맺었다. 즉 일찍 개화가 됐다는 것이다. 임은 와세다 대학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京興의숙'에서 공부했다. 그 당시 김학곤이라는 사람과 알게 되었다.

34) 김철수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김철수가 알고 있는, 민족해방을 위해 보천교에서 출금한 돈은 총 5만원이다.

35) 1991. 1.21. 대흥리 교본소에서 부친 월곡이 타계한 해인 1936년에 16세였던 월곡의 次子 龍南 씨의 口述.. 1991년 2월 26일 당시 간부였던 閔英鎬(녹취 당시 100세)의 子 永川 씨 면담 내용도 참고하였다. 참고로, 敎史인≪普天敎沿革史≫는 월곡의 구술을 여러 간부가 기록·정리한 것으로, 저본인 上本(1909-1934)은 1948년에 출간됐으나, 이미 원고는 1936년에 완성, 출간을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해방된 뒤래야 빛을 보게 되었다.

이 자는 '엠엘당 사건' 연루자다. --- 임은 상해 임정 수금책인 소병언과 친했다. 송진우, 장덕수의 선배이기도 한 임은 보천교와 관련을 맺었던 것은 바로 동학 때문이었다. 임은 보천교 차경석에게 돈을 받아 장덕수에게 주었고, 하와이에 가서 다시 라영균에게 주었다. 다시 라영균이 받은 즉시 영국 옥스포드대로 유학했기에, 혹 유학 경비로 쓰지 않았나 추측한다. 실제 라영균 생존 시 얘기로 들었으나, 자금이 상해로 전달됐는 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질 : 교수님께서 보천교 관련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시각이 '사교적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자금으로 보천교 교금이 (관련 자료를 가리키며)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답 : --- 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나는 60년대 거의 완벽하게 증언을 기록하여 쓴 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렇기도 하지만…. 즉 증산의 24인 제자들 모두가 동학인들이었다. 그들은 새정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동학운동을 펼치다가 동학이 실패하자 실망한 나머지 증산으로 돌아섰다. 삼덕교의 이치복은 그의 아들 치백에게 증언하기를 "증산의 무리들은 좋지 않은 단체로 알고 구릿골에 가보니 그의 제자들은 모두가 反日團體였다."고 했다. --- 대흥리에 왔던 사람은 '조경한'을 안다. 이정립 선생이 전주 남노송동 저택으로 조경한 선생을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 36)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은 林圭다. 임규는 후에 보천교인으로, 조선물산장려회 회원으로 활약하였던 인물이다.

아래는 앞의 2인의 구술을 뒷받침해주는 당사자 김철수의 증언이다. 위의 구술 내용과 동일한 사안인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분명 보천교에서는 아래 거명된 이들에게 거금을 지원하였다.

(이때가 1922년 경이다.) 모스크바의 약소민족회의에 金奎植·呂運亨·金 澈·金尙德·羅容均·鄭光鎬·長德震 등이 파견하기로 하고,

36) 이강오의 구술(1991. 10.19. 이강오의 자택에서).

여비 마련은 崔八鏞·長德秀 두 사람이 車京石을 방문해 돈 萬圓을 받아, 이것을 내가 맡아가지고 7인에게 支給했다. 37)

이 밖에 김철수 생전에 김효명 38) 에게 당시 사회운동 전반에 걸쳐 증언을 했고, 그 증언에는 39) 보천교의 자금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온다고, 김효명은 말했다. 40)

4) 趙晩植과 권총단 사건

'趙晩植과 권총단 사건'에 관해서는 필자의 졸고 이외 그 어떤 연구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다. 때문에, 사건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趙晩植에 관해서이다.41)

趙晩植은 1886년생으로, 본적은 당시 平壤府 上需里 91번지이며, 출생지는 알 수 없다. 1926년 당시 주소는 경성부 紅把洞 104번지. 1931년 8

37) 김철수(이균영 편), <김철수 친필 유고>, ≪역사비평≫ 5호(역사문제연구소, 1989), 354쪽. 이균영에게 들어간 친필 유고는 평소 김철수의 지근에 있었던 정진석(부안 백산고 당시 교장)이 갖고 있던 것이었다.

38) ≪지운당-지운 김철수 회고록-≫발행인. 제1차 조선공산당 김재봉의 친자로 원불교 교무.

39) 녹음 테이프 100여 개가 넘는 분량으로, 일부는 풀어져 자료집≪지운당≫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40) 필자의 <일제하 보천교운동 연구 -교주 차경석을 중심으로->(하), 앞의 책, 137쪽 참조.

41) 지난 6월 27일(토) 한국민족운동사 월례발표회에서 필자의 졸고를 논평한 이애숙은 '여기에서 말한 조만식은 同名異人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해 옴에 따라 관련 사료를 정밀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호가 고당인 曺晩植과 전언에서 말하는 趙晩植은 별개의 인물이었음이 밝혀졌다. 단지, 호가 고당인 조만식이 보천교와 관련돼 있다고 한 것은 월곡의 후손이나 당시 교인의 구술에 의한 것일 뿐. 최근 이 문제로 이들에게 재차 물은 적이 있다. 결과, '사변 이후 이북에서 사망한 조만식, 즉 삼국지 曹操의 曹字를 쓰는 조만식이 분명하다.'고 대답하였다. 아무튼, 보천교와 두 조만식이 모두 관련돼 있는 것인 지, 또는 趙晩植을 曺晩植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인 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권총단 사건의 조만식은 분명 曺晩植임이 분명하다.

월 15일, 46세의 일기로 신의주도립병원에서 병사하였다. 경성에 사는 그의 사위는 李晟煥과 어린 아들 平吉이 보는 앞에서 신의주 공동묘지에서 그의 동지였던 崔永萬, 崔麟柱, 함택엽 등에 의해 매장되었다. 이때가 8월 17일이다.

그는 기미독립만세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安昌浩와 연락을 취하며 일제의 요인 암살을 계획한다.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경성에 잠입한 그는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복역 후 그는 보천교 본소에 와 있으면서 修好司長(외교담당)을 지내다가 다시 인천을 거쳐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25년에 두 번째 요인 암살과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폭탄과 권총을 가지고 잠입한다. 잠입해 머문 곳 역시 보천교 본소였다. 이때 동지였던 이춘배의 배신으로 다시 체포되어,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그가 출옥하여 간 곳은 만주의 安東縣 방면. 혹독한 고문과 감옥 생활로 얻은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1931년 타계하였다.(42) 동아일보 1931. 8. 23.

다음은 권총단 사건과 관련, 당시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이다.

> 금월 16일에 경기도 경찰부에서는…조선인 형사 2인을 대동하고 정읍 경찰서 서원과 합동하여 정읍군 입암면 대흥리 보천교 중앙본소에 출장하여 보천교 敎方主인 金正坤, 韓奎淑, 趙晩植 등 5인을 잡아가지고 정읍경찰서로 와서 하룻밤을 지낸 후, 그 이튿날 17일 첫차로 상경하였는데, 내용이 극히 비밀하여 진상은 미상하나, 모 방면으로 탐문한 바에 의하면 얼마 전부터 보천교 본소에서 재외 동포와 연락을 취한다 하여 李春培를 시켜 滿洲 開拓費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춘배가 만주에 들어가서 正義部와 연락을 얻은 후 정의부원 몇 사람과 함께 조선 내지에 들어오고자 하나, 래왕 여비와 육혈포(권총) 등속을 가지고 오기가 좀 위험하여 安東縣 등지에서 주유하

42) '신상기록카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別集 8 (국사편찬위원회, 1993), 조선일보 1926. 11.19, 1931. 8.23 참조.

> 면서 보천교 본소로 통지 한즉, 본소에서 간부 몇 사람이 달려가서 상의한 결과 정의부원들은 거기 머물러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만주 개척비 30만원과 저간 여비까지 보천교에서 곧 보내주기로 하고, 육혈포 2자루는 보천교 간부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만주 개척비 30만원은 고사하고 여비 한 푼을 보내주지 않고 가지고 온 육혈포만 가지고 嶺南 방면으로 넘어가서 강도 행세를 몇 군데 해먹은 중에 괴수된 자인 趙晩植 등이며, 돈 보내주기를 날로 기다리던 이춘배 일행은 돈이 아니오는 대신에 무전취식으로 고소를 당하고 본즉, 분하기가 짝이 없어 이춘배가 곧 경성에 와서 경찰부에 자연 고발한 까닭에 그와 같이 돌연히 검속을 당함이라더라.43)

위 내용을 요약하면, 만주 개척비 30만원을 받기 위해 正義部에서 밀파한 李春培는 권총 2자루를 보천교인에게 넘겨주고 경상도 안동 등지에서 전전하다가 보천교에서 약속한 돈 30만원과 여비가 당도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밀고해버렸다는 것이다.

> …정의부에서는 정찬규에게 권총 두 자루를 주어서 이춘배와 같이 지난 8월 경에 조선으로 파견하게 되었다. 정찬규, 이춘배 두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정읍 보천교 본소를 찾아간 즉 … (검거된 6명) 이때에 의리가 부동한 이춘배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자기의 신변이 위태할 듯한 데다가 보천교도에게 속은 일이 분하여 즉시 경성으로 올라와 그 사실의 전후 전말을 경기도 경찰부에 밀고하였다. 함양에 떨어져 있는 보천교도와 정의부원은 각 처로 돌아다니며 소위 자금 모집할 비용을 변통하기 위해 정읍으로 와서 두류하고 있는 동안에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형사대를 파견하여 여섯 명을 검거하게 되었다.44)

경상남도 咸陽郡 西下面 鳳田里 韓圭淑(38)과 平壤府 上需里 91번

43) 조선일보 1925. 11.21.
44) 조선일보 1925. 12.14. 이외, 1925. 12.18, 1925. 12.19 참조.

지 趙晩植(40), 평양부 壽町 鄭燦奎(40), 長水郡 溪北面 放田里 鄭尙燁(33) 등 4명은 본래 普天敎 敎徒로, 한규숙은 方主까지 되었던 바, 소위 차천자가 정읍에다가 회관을 건축할 때에 회관 건축할 비용이 없음으로 해외에서 獨立運動을 하는 통의부원과 같이 꾸미고 권총을 휴대하고 전국에 흩어진 부호들의 집을 음습하여, 군자금이라고 일컫고 돈을 강탈하여 전기 회관 건축에 보충코자 작년 음력 7월 18일에 권총 두 자루와 탄환 47발을 金寅河라는 사람을 시켜 중국 安東縣에서 新義州까지 밀수한 후 경남 함양군 席卜面 熊谷里에 사는 부호 閔泰鎬의 집을 습격코자 懷中電燈·脚絆·모자·양복 등을 산 다음에 이것이 발각되어 그 동안 예심 중이던 바, 13일 오전 11시에 경성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三田村 재판장의 심리와 中野 검사의 입회로 공판을 개정하였다더라. 45)

趙晩植으로서는 두 번째 거사인 이 권총단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단지, 그 내용 가운데 인물 趙晩植을 호가 고당인 曺晩植으로 오식돼 있었던 것같다. 당시 언론들은 '보천교도와 모의하여 군자금을 모금하려던 보천교 간부인 趙晩植(40)과 韓圭淑(38), 평양부 수정의 정찬규(33), 전북 장수군 계북면 방전리의 ○상엽(32) 등은 '制令違反 강도준비'라는 죄명에 대한 판결이 1926년 11월 18일 오전 11시부터 경성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三田村 재판장으로부터 조만식 1년 6개월, 한규숙 1년, 정찬규 1년, ○상엽 8개월의 징역에 각각 구류 기간이 100일씩 언도'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46)

5) 1929년 '三光靈奉安式' 불발과 보천교 옥쇄 사건

1926년 3월, 조선총독 齋藤實이 교본소를 방문하여 월곡을 면회하고 돌아간 사실47) 은 조선의 天子 될 월곡을 총독이 拜謁했다는 억측으로

45) 조선일보 1926. 11.14.
46) 동아일보 1926. 11.19. 매일신보 1925. 11.9, 11.21, 11.22, 11.25 참조.
47) 보천교연혁사(상), 69전-71전.

나돌면서 위축된 교운동이 순식간 되살아났다. 이로써 정읍 대흥리에서 진행된 사상 유례없는 교본소 신축 역사도 마무리 되었다. 그렇다고 일제의 탄압이 중단되거나 줄어 든 것은 아니었으며, 시국대동단의 활동과 총독의 교본소 방문이나 경무국장의 잦은 월곡과의 면담은 오히려 식민지 지식인들의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켰다.48) 여기에다 서너 차례의 '천자등극행사'의 不發은 민중들의 교운동에 대한 불신과 이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을 타개하고자 서울의 경복궁에 버금가는 교본소 개원식인 '十一聖殿 內 三光靈奉安式'을 성대히 치르기로 하였다. 이 행사는 또 다시 '天子登極式'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교운동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이에, 일제는 경무국 산하 특수경찰대를 급파하여 행사를 원천적으로 저지하였다. 그래도 행사를 강행하려는 월곡을 소환하여 조사한 끝에 내란죄 등으로 고등법원에 기소하였다. 이어, 간부 40여 명을 긴급 체포하여 내란죄로 처벌하였으니, 이를 '보천교의 玉璽 사건'이라 부른다.49) 이는 교본소를 급습한 경찰대에 의해 '등극을 준비하는 과정의 組閣 名簿'와 '玉璽로 불리우는 印章'과 '天子劍'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후, 교운동은 급격한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6) 영변·희천 사건과 강원도 평강 비밀결사체 발각 사건

1936년 평안북도 熙川과 寧邊에서 국권회복을 도모하는 비밀결사체가 발각되었다. 이 결사체는 다름 아닌 보천교 조직이었다. 보천교의 조직운동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殘黨에 의해 국권회복을 꾀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었다.

같은 해, 강원도 平康에서도 잔당인 일명 仙道敎徒에 의한 국권회복운

48) 동아일보 1928. 10.10 참조.
49) 조선일보 1929. 7.2, 7.9, 7.11, 7.12, 7.22, 7.24 참조.

동을 꾀하는 비밀결사체가 발각되어, 관련자 대부분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의 파장은 당시 총독부에 직보한 평강경찰서의 비밀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다.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보천교의 조직 운동이 재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긴박한 우려 속에서 관련자 전원을 경성으로 압송시켜 재판을 진행시켰으며, 월곡을 위시한 주요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였다.[50]

3. 보천교의 反抵抗性과 '代理統治說'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천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상상 밖이었다. 지면의 한계로 이루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일경의 추적을 받고 있던 월곡이 모친의 상(1922년)을 당했는 데도 배회만 하였다든가, 심지어, 그를 쫓는 조선인 밀정이 수명이나 되었다고 한다던가, 한때 그를 잡기 위해 전북 경찰부 고등과장 幾世橋가 인근 각 군의 경찰들을 일으켜 그의 집을 포위, 수색하였으나 잡지 못했다는 등의 일화(1922)[51] 들이 수없이 많다. 월곡이 긴 수배에서 벗어난 계기는 조선총독이 교본소를 방문하고 난 뒤부터였다.

1) 조선총독 齋藤實과 경무국장 淺利의 교본소 방문

1926년 3월, 조선총독 齋藤實(사이토 마코로)과 1928년 경무국장 淺利(아사요시)가 정읍의 교본소를 방문하였다. 이 사건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조선총독을 대신해 보천교의 월곡이 조선을 대리 통치할 것이라는 억측이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들끓었던 '天子登極說'을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가설로 발전하였고, 이를 두고 반기는 쪽과 비민족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안팎의 견해가 비등하였다.

아무튼 代理統治든 天子登極이든 당시 조선총독이 월곡을 찾아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조선의 대리통치설'은 세간에 확대재생산되어 큰 파문을 불러왔다. 교인이 아닌 이들도 암울했던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요 의지처로 보천교운동을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2) 時局大同團의[52] 運用

1924년, 甲子年登極說이 맹위를 떨치던 시기. 시대일보 인수 파동을 계기로 내분이 격화되자 그 동안 탄압과 내분이라는 안팎의 문제를 일거에 타결해보려는 의도로 時局大同團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일제의 '대동아공영'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당시 청년지식인층의 비난을 촉발시켰다. 시대일보 사태(1924) 이후, 普天敎革新會가 등장(1924)하자 그 당시 언론들은 보천교를 迷信, 邪敎로 거세게 비난하였다. 이와는 상관 없이, 교단 내부의 청년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교운동의 계몽주의화가 추진되었으며, 교운동의 현실 정치화도 이때 꾀해졌던 것이다.

월곡은 핵심 간부를 일본의 고위 정객들과 만나게 해 보천교의 취지를 알리는 등 안팎의 불만과 탄압을 대외적 과시로 덮어버리고자 하였다.[53] '보천교는 仁義와 道德을 崇尙하며, 相生을 종지로 하며 大同 團結을 목적으로 인류가 대동 화합'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며, 우선 대동아시아의 화합과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일본과 조선이 화합해야 할 이유라고까지 피력하였다. 일본 내부의 고위층과의 교감에다 조선총독부 고위 관리의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침입하는 이 때를 당하여 동

50) 조선일보 1935. 11.10(석), 7.25(석), 8.20(석) 참조. ; <仙道敎의 不穩計劃에 관한 件>(≪警察情報綴 - 平高秘密文書 第839號 -≫, 平高秘第 839호, 昭和 10年(1935) 7月 26日, 平康警察署, 京城地方法院檢事正殿) 참조.

51) 이성영의 앞의 책, 94-95와 104-105쪽 참조.

52) 時局大同團에서 時局은 '時國'이라는 음에서 취한 것같다. 보천교연혁사에는 '敎名曰普化'라고만 명기돼 있으나, 주문의 실제 내용은 '國號曰時'로 되어 있다고 한다.(이강오, <보천교>(≪전북대학교논문집≫8, 1966), 19쪽 참조.)

53) 이성영의 앞의 책, 115쪽 참조.

양 황인종은 상호간 대동 단결로써 세력을 공고히 하자.'는 권유에 따라 시국대동단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조직을 중심으로 식민지 사회에서 자치 권력 획득을 원했던 교단 핵심부의 의중이 담겨져 있다.

시국대동단 활동의 결성과 함께 그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전국적인 강연회를 실시(1924-1925)하나, 이는 곧바로 각 언론과 사회 단체의 '보천교박멸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월곡은 이 단체를 해산토록 하였다.[54] 이를 보천교의 자치운동이라 부르기도 한다.[55]

시국대동단 활동의 실패는 보천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났다. 그리고 더욱 폐쇄적이고 골수 신앙으로 국한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정치적 성향의 교조직이 신앙 단체로 고착화 돼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로, 시국대동단의 주요 인사로는 교단측의 林敬鎬와 教外人인 蔡其斗, 李達濠 등이 대표적이다. 후에, 蔡, 李는 보천교측과 갈등을 일으켰으며, 강연회 당시 일경이 보천교 박멸운동 세력과 함께 교인을 탄압한 사실은 시국대동단 활동이 教의 의지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근거이기도 하다.

4. 교운동의 소멸과 그 의미

1936년 3월, 교주인 월곡이 타계하였다. 월곡의 타계로 일제의 유사종교 단체의 감독이 강화됨과 더불어 공인 종교까지도 통제가 강화되었다. 월곡의 사후 불과 3개월도 채 안 된 그해 6월에 '類似宗教 취체강화책'이 발동되었고, 이어, 공인종교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정책들이 발동되었다.[56] 이로써 해방되기까지 약 20여 년 동안 국권회복 문제

54) 위의 책 참조.

55) 시국대동단의 활동에 관한 내용은 보천교연혁사(상), 38전, 39후-48전. 49후, 51후-56전. ; 동아일보 1925. 1.12, 1.16, 1.17. ; 조선일보 1925. 1.11, 3.19, ; 매일신보 1925. 1.10, 1.18. 등 참조.

56) 조선일보 1936. 6.10(석), 6.14(석) 참조. 앞의 신문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의 종

를 다룬 민족종교운동은 국내에서 만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

때론 전면에서 때론 비밀결사체로서 국권회복을 암암리에 도모하였던 보천교운동은 월곡의 타계로 인하여 그 운도 다하였다. 또한, 그의 타계는 보천교에 의한 국권회복운동의 소멸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규모나 美的 가치로 보아 당대 최고라는 교본소의 十一殿을 비롯한 50여 채의 군소 건축물들의 운도 함께 다한 것이다. 그의 타계 즉시,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교본소 건축물들이 전면 해체되어버렸기 때문이다.

1925년 이전의 보천교운동은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 이후의 보천교운동은 타협주의에로의 傾倒의 조짐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물론, 겉과는 다르게 운동의 연속선상에서 일관된 反帝 建國 의지가 왕성하였다는 점도 앞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1920년대 초반, 운동에 있어서 경도 현상은 보천교 뿐만 아니라 조선의 제 사회 단체들에게도 나타났다. 소위 민족주의 세력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일제의 강압적이고도 교묘한 탄압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물산장려운동이나 민립대학기성회운동 같은 온건한 운동의 대두는 일제의 이러한 정책적 산물이라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1924,5년대의 종교 및 사회운동 세력은 복잡 미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종교 단체나 사회 세력, 그리고 일제에 협조하는 세력들까지도 식민지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정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Ⅲ. 물산장려운동과 보천교운동

본란에서는 물산장려운동 연구에 있어서 그 동안 언급되지 않던 보

교와 사상 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는 데 있어서 보천교는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교 관련 부분을 밝히고, 보천교와 관련한 물산장려운동의 배경을 서술하고자 한다. 서술에는 앞선 연구 경향[57]에 휘둘리지 않고 이미 일반화된 내용에 당시의 객관적 자료를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참고로, 물산장려운동 역시 일부 보천교측 입장에서는 보천교운동의 하나로 보지만, 본란에서는 앞선 연구의 일반적 경향성을 존중하여 '물산장려운동에 보천교가 개입'하였다는 시각(가설)을 견지할 것이다.

1. 조선물산장려운동

1) 평양의 물산장려운동

먼저, 평양에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에 관해서다.[58]

57) 조선물산장려운동에 관한 연구 경향에는, 1920년대 초반의 '실력양성운동'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여기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과, 다른 하나는 이 운동이 민족운동의 기류가 아니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로 나뉘어진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의 연구에는 ①무저항적인 항일운동으로 ②민족기업육성 또는 기업실천운동으로 ③민족 기업의 구제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부정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①조선인 자본가들의 자본축적 운동으로 보는 견해와 ②민족운동의 이념적 변용 과정에서 나타난 운동으로, 실패한 운동이라는 견해, 심지어 ③일제의 사주에 의해 일어난 타협적 운동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방기중, <1920·30년대 조선물산장려회 연구>(≪국사관논총≫67, 1996), 96쪽. ; 이만열, <고당 조만식선생과 조선물산장려운동의 민족사적 의의>(≪조선물산장려운동 발기73주년기념 고당 조만식선생과 조선물산장려운동에 관한 학술대회 ; 이하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학술대회≫ 고당기념사업회·조선일보사, 1993. 8.23.), 1-2쪽 참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연구로는 조기준의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역사적 성격>(≪역사학보≫41, 1969)과 조영건의 <일제하 경제적 민족주의와 물산장려운동>(≪경남대논집≫18, 1991)이 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의 연구로는 강동진의≪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한길사, 1980)가 있으며, 운동 주체에 있어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두 계통의 운동론을 밝힌 연구로는 윤해동의 <일제하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그 이념>(≪한국사론≫27, 1992)이 있다.

58) 평양에서 일어난 물산장려운동에 관해 상세히 다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동아일보 1920. 8.23의 '조선물산장려회취지서', 같은 신문 1920. 9.2, 9.4, 9.5, 9.6의 '조선물산장려회 세부 강령 및 논리'와 '이만열의 앞의 글'을 참고하였다.

1920년 7월 30일, 평양 야소교서원에서 曺晩植 외 4,50명이 모여 조선물산장려회 발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모임에서 임시회장으로 조만식을, 회칙 기초위원으로 鄭世胤·金東元·金亨淑 세 사람을 선출하고, 8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이어, 8월 23,4일경에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59]

취지서의 내용[60] 을 요약해 보면, 조선이 어렵게 된 원인을 ①自作自給을 하지 않았고 ②보호무역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무역을 보호하고 조선물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긴급한 문제는 의식주 문제, 즉 산업 문제이며, 이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에 산업의 권리와 조건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의 것을 사 쓰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61]

1922년, 이 운동의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절감하고 '조선물산장려조합'의 조직을 병행키로 한다.[62] 이어서, 물산장려회가 평양 장대현 예수교청년회관에서 창립되니, 이때가 1922년 6월 20일이다. 회장에 曺晩植, 부회장에 李德煥 그리고 이사로는 김동원 외 9명이 선출되었다. 이어, 6월 26일에는 大成館에서 '조선물산장려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우리 사회의 산업 발전을 企圖하려면 우리의 물산을 장려하고 동시에 우리의 손으로 무엇이든 제조하여 우리의 생산력을 조장함이 무엇보다 긴급하다.'는 각오를 다졌다.[63]

59) 동아일보 1920. 8.23 참조. 이만열은 창립취지서가 앞의 동아일보에 보도된 8.23일을 창립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며, 아마 발기인 대회를 창립대회로 이해한 듯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만열의 앞의 글 참조.)

60) 위 신문 1920. 8.23 참조.

61) 위 신문 1920. 8.23, 9.4, 9.5, 9.6 참조.

62) 위 신문 1922. 5.26, 6.17 참조.

63) 위 신문 1922. 6.17, 1922. 6.29 참조.

2) 경성의 조선물산장려회

평양의 조만식을 중심으로 시작된 물산장려운동에 이어, 1923년 1월 20일에는 경성의 協成學校에서 조선물산장려회 발기대회가 열렸다. 이때 준비회에서 제정한 趣旨書와 憲則이 일부 개정 통과하고, 실행 및 유지 방법은 시간 관계상 보류, 임원을 먼저 선출하였다.[64]

이후 선전·계몽을 통한 물산장려운동은 서울을 비롯하여 각 지방의 도시에서, 사업가와 주부 그리고, 기생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계몽적 국민운동 형태의 운동은 조선물산장려회의 결성과 더불어 그해 3월의 전국적인 선전 행렬 사업을 고비로 열화점에 도달, 그 후로는 소강 상태의 답보적 성격을 면치 못하였다. 창립 1주년이 되는 1924년 구정의 대계몽 선전 강연을 전환점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든 물산장려운동은 그 후로 본부 조직의 유지에도 어려울 정도였으며, 1925년경에는 일상적인 사업은 고사하고 회관 사무실 유지조차 어려워지게 되었다.[65]

소강 원인으로는 ①일제의 갑섭에 따른 제약 조건 속에서 사회운동 진영 간의 세력 분파 현상을 들 수 있다. ②민족해방운동은 필수적 전제로 하고 그것을 위한 물적 기반을 다진다는 운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의식의 결여가 이 운동이 지닌 맹점으로 작용하였다. ③막연하게 조선인 기업가의 이익을 민족 전체의 이익과 동일시 하고 있다는 점 등도 소강 원인이다.[66] 이런 상태에서 조선 물품을 무조건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운동의 취지는 대중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고, 민족해방운동과 대립되는 예속 자본가의 이해 속으로 쉽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67]

64) 서울의 조선물산장려회에 관한 것은 당회 기관지 ≪산업계≫(창간호)를 참조하였다.
65) 조영건의 앞의 글, 160쪽 참조.
66) 위의 글, 160쪽 참조.

이후, 통합 민족 역량체로서의 신간회가 태동, 활약하던 1929년에는≪산업계≫에 이은 ≪조선물산장려회보≫가 창간되고, 회관이 다시 마련되는 등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31년 만주 사변 이래 식민지 조선에 밀어닥친 일제의 군국화 식민통치 정책과 일본 독점자본은 운동의 이념적, 실제적으로 활로와 토대를 구축할 수 없게 하였다. 그 어떤 민족개량주의와 타협주의도 일제의 타격을 받던 시기인 1940년 8월, 형태만 남은 조선물산장려회는 강제 해산됨으로 그 종언을 맞고 말았다.[68]

2. 물산장려운동의 발생 배경과 그 이념

1923년, 물산장려운동의 발생 배경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

1922년 5월, 조선경제회의 회원이 주축이 되어 조선 民友會가 결성되었다. 이 민우회는 유산자 중심의 단체다. 이 단체의 결성 배경에는 일제의 의도도 작용하였다. 즉, 유산자들을 경제사회 운동의 대표주자로 전면에 내세워 소위 민족운동의 개량화를 꾀하였던 것이다. 민우회 임원으로는 보천교와 관련이 있거나 보천교인인 설태희나 林圭, 朱翼 등이 포함돼 있다. 민우회의 특징은 서울계 사회주의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자들이 다수 포함된 이유는 민우회 주도 세력인 당시 청년연합회 우파 및 동아일보계의 조직 확대를 우려한 데서 비롯되

67) 위의 글, 161쪽 참조.
68) 위의 글, 161쪽 참조. 참고로, 방기중은 1923,4년대 물산장려운동을 창립기 운동으로, 그리고 그 이후인 1925년대의 운동을 재건 운동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1929년 후반에서 1932년에 이르는 대공황기에도 운동은 활발히 전개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주도하는 이사진이 크게 바뀐 상태에서, 초기의 지식인 중심의 계몽운동 단체에서 지식인과 상공인이 결합된 경제운동 단체로의 전환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방기중에 의하면 1937년 2월, 물산장려회는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방기중, <1920·30년대 조선물산장려회 연구>(≪국사관논총≫67, 1996) 참조.)

었다.[69] 민우회가 가지는 중요성은 민우회의 회원들 대부분이 후에 민립대학기성회와 조선물산장려회의 간부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1921년부터 동아일보계와 청년연합회 우파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 세력들은 민족운동의 방향을 '실력양성'쪽으로 국한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예속화된 유산자층과의 연합도 배제하지 않았으며, 일제에 대해서도 타협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었다. 이에, 당시 민중운동을 주도하던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우파 세력에 대하여 공세를 강화하였다. 1922년부터 실력양성운동이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자 이념 구분 없이 모인 기존의 청년운동단체 내부에서도 분화될 조짐이 일어났다. 1922년 3,4월경부터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1923년 9월 이후부터 1924년 초까지 분화의 정착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기성회운동은 이러한 분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요, 그 분화의 정착이라 말할 수 있다.[70]

다시 정리한다면, 1920년대 초반 청년연합회와 서울계 사회주의자들 간의 소위 민족운동 주도권 경쟁은 소위 민족주의 우파 쪽에 의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공세 강화를 낳았고 이 과정에서 우파 쪽은 민중 세력 확보에 치중을 하게 되는데, 그 부산물이 물산장려운동이라는 시각이다.[71] 즉, 1922년부터 실력양성운동의 분화 과정에서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기성회운동이 발생되었다는 견해이다.[72]

물산장려운동의 핵심 이념으로는 '물산장려(토산장려)' 논리가 있다. 이 논리는 제국주의 상품 시장의 논리를 거부하고 '外貨排斥運動'을 주장하는 薛泰熙와 安在鴻에 의해 설파되었다. 이들은 조선인 부르주아, 즉 운동에 참여했던 유산자들의 운동에 대한 주도를 우려하며, 토산 장려와 가내 공업, 소공업적 생산에 기반을 둔 자급자작을 주장하였다. 다음은 동아일보와 이광수가 표방하고 나선 '생산증식' 논리이다. 이 논리의 목적은 민중 설득에 있었다. 또한, 이 논리가 타협적이라며 비판해 온 사회주의자들을 공박하는 과정에서 논리가 강화되었다. 예컨대, 물산장려운동은 日貨排斥運動이 아닌 일부 조선인 공업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주장이었다.[73]

물산장려 논리는 일제에 대해 비타협적인 자세를 유지한 반면,[74] 생산증식 논리는 일제의 운동에 대한 견제에 대비한 것이며, 운동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타협적 견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운동 추진 주체 내부에는 서로 이질적인 두 개의 논리가 중첩되어 있었다.

3. 물산장려운동과 보천교

사회주의자들이 탈퇴한 청년연합회의 집행위 상임위원으로 金喆壽와 高龍煥이 선임되었고, 이들은 이후 조선물산장려회 이사로, 민립대학기성회의 중앙집행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고용환은 당시 보천교의 주요 인사였다. 이는 소위 민중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사회주의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청년연합회 우파 쪽에서 민중 조직을 이끌고 있던 보천교를 끌여들였을 가능성이다.

그 동안 물산장려운동이 보천교와 무관한 것처럼 연구되어지고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조선물산장려회 기관지 ≪산업계≫[75] <조선물산장려회회록>[76]에 나타난 주도 인물 가운데 보천교와 관련한 인물이 다수

69) 윤해동, <일제하 물산장려운동의 배경과 그 이념>(≪한국사론≫27, 1992), 310-311쪽 참조.
70) 위의 글, 312쪽 참조.
71) 위의 글, 352쪽 참조.
72) 위의 글, 311쪽 참조.
73) 위의 글, 352-353쪽 참조.
74) 위의 글, 353쪽 참조.
75) 1923년 12월 1일 발행. 편집 겸 발행인은 兪星濬. 발행소는 조선물산장려회. 가격은 25錢. 인쇄소는 普光社 印刷部. ; 이하 산업계. 여기에서 보광사란 보천교에서 설립한 인쇄소로 기관지 ≪보광≫을 내기도 하였다.
76) 산업계 창간호, 66-67쪽.

포함돼 있다. 이는 교가 물산장려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증좌이다. 참여한 이들의 성향과 그 배경을 살펴보면 물산장려운동에 대한 인식이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

1923년 1월 20일에 열린 조선물산장려회 창립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20명, 그리고 같은 해 4월 30일에 제2회 정기총회에서 이사 10인을 추가로 선출하였는데,[77] 이들 가운데는 보천교 간부가 4인, 교단과 밀접한 인물이 2인이나 있다. 즉, 高龍煥, 李得年, 林敬鎬, 朱 翼 등은 교간부였으며, 金喆壽, 薛泰熙, 李順鐸 등은 교단과 밀접히 관련된 인물이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李順鐸과 보천교

李順鐸(1897~?)은 전남 海南 출신으로, 본관이 延安이요, 호는 曉亭이다. 그의 집안은 자작농가였고, 그의 부친이 1904년에 타계하자 가세는 더욱 기울어 소작 농가로 전락하였다.[78]

1922년 3월 일본 경도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그는 귀국하여 한때 김연수가 경영하는 경성방직주식회사와 조선상업은행에 잠시 몸을 담았다가 1923년 9월부터 연희전문 상과 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이때 물

77) 鄭魯湜, 金喆壽, 韓仁鳳, 薛泰熙, 李順鐸, 李鍾麟, 沈宜性, 白寬洙, 金潤秀, 高龍煥, 羅景錫, 李得年, 崔元淳, 金秉濾, 林敬鎬, 朴鵬緖, 李璜珪, 金德昌, 辛泰嶽, 吳尙俊, 宋鍾愚, 李東植, 玄僖運, 兪星濬, 朱 翼, 李甲成, 朴東完, 高裕相, 張斗鉉, 李時琓. 이상은 1923년 4월 30일 제2회 정기총회 시 재선출된 임원 명단임. (산업계 창간호, 66쪽 참조.) 이 가운데 임경호와 주익, 이득년, 고용환 등은 보천교 간부요, 이순탁과 설태희는 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7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8)에는 '경기도 출신'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순탁의 친형이자 보천교 수위 간부였던 이상호, 이성영(정림) 형제의 출신지는 전남 해남이다. 정확한 출신지는 전남 해남군 삼산리 송정리로, 이희만의 다섯째로 태어났다.(홍성찬,<한국 근현대 이순탁 정치경제사상 연구>(≪역사문제연구≫창간호, 1996), 70쪽.)

산장려운동에 관여하면서 일간지에 물산장려운동에 관한 글을 꾸준히 기고하는 동시에 강연회의 연사로도 활약하기도 하였다. 1924년에는 연희전문 상과 과장이 되었고, 1933년에는 세계일주를 하면서 여행기를 쓰게 되는데, 이 여행기를 보게 되면 그가 思想的 多元主義者임을 알 수가 있다. 1937년 수양동우회, 일명 흥사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940년 12월 19일에 가서야 징역 2년에 4년 간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옥하였다. 그가 구속되던 다음 해인 1938년에 해직되었고, 출옥 후 한때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대우로 서무과장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연희전문 상과에 복직, 정경상학원장까지 맡았으며, 당시 한국국민당과 민중동맹에 참여하는 등 중간 노선을 견지하다가, 이승만 정권 수립과 동시에 초대 기획처장을 지낸다. 그의 생사는 한국 내전(6·25)때 납북 당해 확인할 길이 없다.[79]

본란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창립기 조선물산장려회의 이사로 활약을 한 이순탁이 과연 보천교와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하는 점이

79) 이순탁과 관련한 자료나 논문은 아래와 같다.
- 김명선, <이순탁선생>(≪월간 세브란스≫, 1979.12), 7쪽. 이순탁을 연희전문에 추천한 인사였던 김명선의 회고담이다.
- 윤기중, <이순탁>(≪계간 연세진리자유≫, 1993, 봄), 14-20쪽. 김명선의 위의 회고담을 인용하였다.
- 홍성찬, <한국근현대 이순탁의 정치경제사상 연구>(≪역사문제연구≫창간호, 1996), 67-111쪽. 이순탁 관련 최초의 연구 논문이다.
- 방기중, <백남운 연구 I >(≪역사비평≫, 1989, 여름). 이순탁과 관련한 내용이 간간히 나와 있다.

본란에서의 이순탁의 생애에 관해서는 위의 글들을 요약했으며, 이순탁의 조카 이영옥과 형수인 장도 여사의 증언을 참고하기도 하였다. 이순탁은 초대 정부의 기획처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46편의 논문과 평론을 발표하였으며, 이 가운데에는 한국경제나 세계경제에 대한 평론이 22편, 사회주의 이론이나 사회주의 체제 또는 그 이론의 해설이 13편, 그리고 논문이 11편이다. 저서로는 세계일주 여행기인 ≪최근세계일주기≫가 있다.(이 여행기는 ≪최근 세계일주기 -일제하 한 경제학자의 제국주의 현장답사-≫(학민사, 1997)로 개정, 출간되었다.)

다. 김명선은 그가 기독교인이며, 고베고등학교 재학 시 고베 한인교회를 다녔고, 연희전문에 재직하는 동안 새문안교회 집사로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80] 이 글을 참조한 윤기중의 글[81] 도 앞의 김명선의 것과 다르지 않게, 그의 출생지와 성장 배경에는 함구하고 있다. 이순탁의 출생지와 성장 배경, 그리고 가족 관계를 언급하기에는 그 자료가 부족했겠거와, 아닌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배제했을 수도 있다.

최근의 홍성찬의 글[82] 에는 이순탁의 출생지나 성장 배경, 그리고 가족 사항까지 자세히 적고 있다. 특히, 두 형이 보천교 수위 간부로 활약하면서 이순탁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받았으며, 두 형[83] 가운데 특히 李成英의 영향을 받았다[84] 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그의 형들에게서 받은 영향이란 무엇일까?

'1923년 1월에 조직된 조선물산장려회에 이순탁이 창립 발기인으로, 이사로 활약하였을 때 보천교가 이 운동을 擧敎的으로 지원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는 홍성찬의 글[85] 은 조선물산장려회와 보천교와의 관계를 언급한 최초의 연구이다. 홍성찬은 물산장려운동에 보천교가 거교적으로 지원한 배경에는 이순탁이 있었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두 운동체 사이에서의 이순탁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순탁이 보천교인이었다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보천교

80) 김명선의 앞의 글, 7쪽 참조.
81) 윤기중의 앞의 글 참조.
82) 홍성찬의 앞의 글.
83) 李祥昊와 李成英(정립이라고도 함). 이들은 당시 보천교 수위 간부로, 보광사를 설립하여 보천교 기관지 ≪보광≫을 창간하기도 하였으며, 당시 최남선이 사장으로 있는 시대일보를 인수하였다. 특히, 동경 유학파인 이성영은 보천교운동을 계몽주의적 사회운동으로 이끌었던 인물로, 1926년 보천교로부터 출교 당한 후, 증산 강일순의 행적과 어록을 모아 ≪증산천사공사기≫라는 敎典을 펴내는 등 증산교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증산천사공사기≫는 후에 ≪대순전경≫으로, 그리고 증산 각 파에서 채택하고 있는 敎典의 모본이 되었다.
84) 홍성찬, 앞의 글, 73쪽.
85) 위의 글, 73쪽.

연혁사≫에 월곡과 조우했다는 기록이 있다.[86] 예컨대, 이순탁은 보천교 혁신운동으로 교단과의 갈등 관계에 처해 있던 두 형을 대신해 교단과의 관계 개선을 꾀한다는 내용이다. 설지, 이순탁의 노력으로 일시적이나마 두 형과 교단측과의 관계는 개선되었다. 또한, 시대일보 인수 문제로 보천교가 언론의 지탄을 받았을 때에도 이순탁이 이를 중재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이순탁은 두 형이 간부로 있던 보천교의 대외 브레인 역할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어렵잖게 할 수 있다. 즉, 교운동이나 교단 운영에 대한 조언이나 사회 주도급 인물들을 교단에 소개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월곡의 후손들은 이순탁이 보천교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보천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객관적 자료나 증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순탁이 보천교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하였는 지에 대해서, 오래 전에 필자는 '…이상호 일가가 보천교에 몸담았던 때에 이순탁이 일본에 유학했다 함은 보천교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으리라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상호, 이성영 일가는 彈竭者였기 때문이다.…'[87] 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는 필자의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 후에, 동아일보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마쳤다는 이순탁의 일가와 친지의 구술을 들었다. 이순탁이 동아일보계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마쳤다고 언급한 이는 윤해동이다.[88] 윤해동은 ≪산업계≫창간호인 제1호와 제4호, 그리고 방기중의 논문[89] 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산업계≫창간호와 방기중의

86) 보천교연혁사(상), 56전-58전.
87) 안후상, <일제하 보천교운동 연구>(하) (≪남민≫5, 1995), 146쪽. 이순탁 일가에서 필자의 졸고 내용 가운데 이순탁 관련 부분이 어느 한 쪽만의 얘기만으로 서술되어졌다며, 필자에게 간접적으로 항의해 왔다. 본고를 통하여 이순탁과 관련한 모든 분들께, 이순탁의 일본 유학 관련 내용을 확인 절차 없이 다룬 데 대해 사과드린다.
88) 윤해동의 앞의 글, 337쪽 참조.
89) 방기중, <백남운 연구>(≪역사비평≫1989년 여름호).

논문을 눈여겨 보았지만 이순탁의 일본 유학과 관련해 후원자나 후원 세력을 언급해 놓은 곳은 없다. 물론, ≪산업계≫제4호는 확인하지 않았다. 아뭏든, 이순탁의 일본 유학에 도움을 준 실체가 어디냐에 따라 당시 실력양성운동을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주요한 사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그가 일본 유학 시절에 동아일보계의 지원을 받았기에 물산장려운동 당시 동아일보계의 입장을 대변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물론, 동아일보에 물산장려운동과 관련해 많은 논조를 펴기도 하였다. 소위 민족주의 우파 쪽에서 강조하는 생산 기반 강화와 생산 증식에도 관심을 보이기도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시 운동의 분위기를 논자로서 대변한 것일 뿐이며, 동아일보계 김연수로 대표되는 소위 민족주의 우파 세력과의 인연을 넘어선 좀더 깊은 인식론적 배경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맑스의 혁명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였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일제 강점기의 계급적 대립 구조를 일본인과 한국인의 대립으로 이해하면서 한국인은 총체적 무산자라는 입장을 개진하였다는 것이다.[90]

그는 또한 1931년 초에도 일종의 '사회주의적 생산협동조합론'을 구상하여, 주요 생산 기관을 국유화하고 공동 공생을 지향하며, 공평 분배, 즉 생산물을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91] 이는 앞의 소위 민족주의 우파의 견해를 엄호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주장을 극복하려 하였다는 점이며, 나아가 보천교의 운동 양식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가 물산장려운동 이전,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연합회가 좌우로 분열됨에 김철수, 정노식 등과 함께 좌익 성향의 조선청년총동맹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앞의 동아일보계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기존 연구의 입장에 의문을 갖게 한다.

90) 홍성찬의 앞의 글, 87-89쪽 참조.
91) 위의 글, 96-97쪽 참조.

2) 보천교와 관련됐을 인물들

조선물산장려회 이사인 薛泰熙와 金喆壽, 白寬洙 등은 보천교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앞의 구술이 있다.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기성회운동을 평양에서 주도했던 曺晩植도 보천교와 관련한 인물이라는 전언도 있다.

본고 앞에서 이미 소개했던 '비밀리에 래왕하였던 曺晩植은 보천교 修好司長(외교담당간부)을 지냈으며, 曺晩植 말고도 한규숙·장덕수·최팔용·송진우·백관수·조병욱·신석우·김철수, 또다른 김철수·안재홍·백남훈·설태희·임씨, 허씨 등 여타 조선의 지도급 인사들도 래왕하였다.… 조만식과 한규숙이 일경에 잡히게 된 것은 권총 2자루를 소지한 상해 밀정의 밀고 때문이었다.' 라고 한 전언을 확인한 즉슨, 호가 '고당'인 조만식은 권총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재차 전화로 월곡의 후손들에게 확인한 결과는 '보천교와 관련된 인물은 호가 고당인 조만식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가 사변 이후에 평양에서 죽었다.'며, '부친과 매우 절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92] 하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수호사장을 지냈으며, 권총단 사건과 관련 있는 이는 앞에서 언급한 1886년생으로 1931년에 타계한 趙晩植이 분명하다. 이 둘의 본적지 또는 출생지는 같은 평양이고, 사진을 통해 본 얼굴에는 쌍꺼풀과 콧수염과 짧은 머리가 하나같이 비슷했다. 단지, 趙晩植은 두 번에 걸쳐 요인 암살을 위해 활동하다가 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지내야 했고, 출옥 후 투병 중에 신의주 도립병원에서 사망하였다.[93]

따라서 호가 고당인 조만식 역시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기성회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던 인물로, 후손들의 주장이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92) 차용남, 차봉남 전화 면담(1998. 7. 22)
93) '신상기록카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別集 8 (국사편찬위원회, 1993), 조선일보 1926. 11.19, 1931. 8.23, 동아일보 1926. 11.19, 매일신보 1925. 11.19, 11.21, 11.22, 11.25 참조.

고 볼 수 없다. 단지, 앞의 趙晩植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뿐이다.

보천교의 신로 변경(강증산에서 개신유교로) 조짐은 1920년대 초반부터에 있어 왔다. 본격적인 신로 변경은 1929년부터였다. 여기에 설태희의 영향이 컸으리라는 說이다. 설태희의 논리의 근간은 正義니 人道니 하는 유교적 大同主義다. 이 유교적 대동주의는 그의 '토산장려'를 대표하는 물산장려운동 논리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大同主義를 운동의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보천교의 敎旨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94] 또한, '자본주의를 몰아내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별게 아닌 차별없이 잘 살아보자는 것'이라며[95]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그의 사상은 보천교의 '集團生産 差別分配制'의 양상과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보천교와 설태희가 밀접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역시 이를 검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3) 기관지 ≪산업계≫와 보천교측 인물들

조선물산장려회 이사 명단에 보천교 간부 4인이 포함돼 있으며, 조선물산장려회 기관지 ≪산업계≫창간과 운영에 보천교의 역할이 컸으리라,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참고로, ≪산업계≫인쇄를 보광사 인쇄부에서 했는데, 보광사는 보천교의 사업체로, 기관지 ≪보광≫을 발간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산업계와 보광은 거의 같은 시기, 같은 인쇄사에서 발간되었다는 사실이다.[96] 즉, 산업계의 창간과 운영이 보천교의 거교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는 점이다.

아래는 위의 내용들을 확인시켜주는 당시 기사들이다.

> 보천교의 忠南眞正院 林敬鎬, 경성진정원 직원 高龍煥, 경성진정원 부장 朱翼은 물산장려회 이사로 참여했다. 고용환은 1923년 5월 물산장려회가 소비조합을 설립했을 때 5인 설립준비위원이 되었다. 경성진정원과 普光社는 물산장려회 기관지인 ≪産業界≫창간호(1923. 12)에 축하 광고를 싣고, 고용환·임경호가 ≪산업계≫의 사무 담당자가 되는 등 이 운동을 교단적으로 지원했다. 1924년 보천교가 ≪시대일보≫인수에 나서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이순탁과 주익은 제3자로서 仲裁에 나서기도 했다.[97]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임경호는 당시 교단의 수위 간부로서 ≪산업계≫의 사무 담당자였으며, 임경호와 함께 고용환도 산업계의 사무담당자였다. 이는≪산업계≫창간과 운영에 교단적으로 지원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어렵잖게 할 수 있다. 즉, 보천교의 도움으로 기관지 ≪산업계≫가 발간, 운영되었으리라는 점이다.

다음은 1923년 조선물산장려회 이사회에 참여했던 보천교측 인물이다.[98]

---

94) 윤해동의 앞의 글, 315-318참조. 보천교가 개신유교로 신로를 변경한 뒤의 교의 목적은 大同이요, 주의는 相生, 강령은 敬天·明德·正倫·愛人, 교리는 仁義이다.

95) 위의 글, 315-318 참조.

96) ≪산업계≫는 보천교의 보광사 인쇄부에서 발간되었다. 산업계 창간 당시 보천교는 2번에 걸쳐 통광고를 싣는다.(광고는 산업계 창간호, 71쪽, 77-78쪽.) ; '1923년 3월, 중국에서 亥主 李成英이 귀국하여 같은 8월 보광사를 설립하여 보광사인쇄소를 개업하고, 이어 9월 15일에 보광지를 창간한다.'(<癸亥 1년 敎史의 槪要>, 보광 4, 1924. 3.27. 89-90쪽.)는 사실에서 보듯, 산업계와 보광은 거의 같은 시기에 발간되고 있다. 1923년 5월 경성진정원에 보광사를 설치하고 李成英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朴英浩를 주필로 임명하였다.(이성영의 앞의 책 107쪽 참조.)

97) 조선일보 1924. 7.13 (홍성찬, <한국 근현대 이순탁의 정치경제사상 연구>(≪역사문제연구≫창간호, 1996), 85쪽에서 재인용.)

98) 참고로, 조기준은 보천교 수위 간부였던 임경호를 '천도교인'으로, 고용환을 '민족주의 인사'로, 이득년을 '한말의 주요 인사'로 표기해놓고 있다. (조기준,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성격>(≪역사학보≫41, 1969), 88쪽.) 이러한 표기에 대해, 조기준은 당시 물산장려운동에 가담했던 柳光烈과의 담화에 의한 것이라고 앞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뒤이은 연구자들, 특히 조영건은 조기준의 이러한 내용을 전재하였다. 처음으로 보천교인으로

순	성명	구분	소속	간단한 이력
1	李得年	창립	보천교간부	보천교측에서 시대일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장인 최남선의 이중적 태도와 사원들의 보천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임시 폐간되는 사태를 당시 부사장이었던 보천교 간부 이득년이 해결하려 함.
2	林敬鎬	창립	보천교 간부	보천교의 보수적 핵심 인물. 시국대동단을 주도함. 후에 출교 당함.
3	朱 翼	2회총	보천교 간부	민우회 임원. 임시정부 참여.
4	高龍煥	창립	보천교 간부	사회주의자가 탈퇴한 청년연합회 상무위원.민립대학기성회 중앙집행위원.

표2) 조선물산장려회 창립총회 당시와 제2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보천교와 관련된 인물 현황.
여기에서 '창립'은 창립총회 시 이사, 그리고 '2회총'은 제2회 총회 시에 선출된 이사를 말함.

당시, 고용환은 사회주의자들이 탈퇴한 청년연합회 상무위원을 지낸 적이 있으며[99] 민립대학기성회 중앙집행위원으로 참여한 바도 있다. 주익은 기미독립만세운동과 상해임시정부에 관여하였다.[100] 이득년은 시대일보 부사장을 지낸 인물로, 당시 보천교측 서명인으로 시대일보 인수에 적극 나선 인물이기도 하다.[101] 임경호는 당시 교의 수위 간부로, 1924년 보천교혁신운동의 주도자인 이성영을 출교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외, 李鍾翊과 林圭를 들 수 있다.[102] 이들은 조선물산장려회 이사는 아니지만 同會 會員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다.[103] 특히, 소위 민족주의자로 알려진 이종익은 1923년 보천교 경성진정원장을 지냈고, 임규는 기미독립만세운동을 물밑에서 주도한 이로, 중간에 보천교에 입교하여 교금을 상해임시정부에 넘겨주려 했던 인물이다.[10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천교 측 인물들은 대부분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기성회운동에 동시에 참여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실력양성운동이 지닌 특성 가운데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당시 보천교가 추진했던 사업들과의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보천교의 일련의 사업들과 그 성향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보천교운동의 계몽주의적 성향

물산장려운동은 조선 물산을 장려한다는 통속적이고도 점진적인 개량운동의 수준을 훨씬 넘는, 1920년대 식민지 경제 상황에서의 대중적 지지와 참여 속에 전개되었던 경제적 민족주의의 발현이다. 따라서 조선물산장려운동은 민립대학설립운동과 병행하면서 일제하 자립적 민중 경제와 교육 여건을 쟁취하고자 했던 민족독립운동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다.[105] 그러나 1920년대 들어 사멸해 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 재래의 수공업에 대한 마지막 憐愍과 같은 것으로, 일찌감치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106]

주익을 언급한 것은 방기중에 의해서다. 방기중은 그의 글에서 '보천교 소속의 주익은 3.1운동, 상해 임정에 참여한 바가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방기중, <1920·30년대 조선물산장려회 연구 -재건 과정과 주도층 분석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 67,1996), 103쪽)

99) 이균영, <김철수연구>(≪역사비평≫1988 겨울호), 259-263쪽 참조.

100) 이균영, ≪신간회 연구≫(역사비평사,1993), 86쪽 참조 ; 이정립 앞의 책, 105-106쪽 참조.

101) <문제의 시대일보 분규의 전말과 사회 여론>(≪개벽≫50, 1924.8), 33-34쪽 '인수계약서' 참조.

102) 윤해동의 앞의 글(308-309쪽)에는 임규와 주익을 민우회 임원으로, 민족주의 인사로 분류해 놓았다. 이는 홍성찬의 앞의 글에서도 마찬가지다.

103) 산업계 창간호, 68-70쪽 참조. ; 보광지에는 1923년 1월 林圭가 眞正院 衡平司長으로 있다가 사직했다고 나와 있다.(癸亥 1年 敎史의 槪要>(보광 4, 1924. 3.27.), 89-90쪽.)

104) 각주 36) 이강오의 앞의 구술 참조.

105) 조영건의 앞의 글, 164쪽 참조.

반면, 보천교운동은 민족의 자립적 생산 양식으로 재래 수공업 육성을 실현시키려 하였다. 이후, 민족 정신의 함양을 위해 민족대학 설립을 시도하였으며, 근대적 생산 기반의 육성책인 제약회사나 제철회사 설립안을 들고 나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운동의 양상은 1920년 초반의 운동 양상과는 다른 것으로, 이를 보천교의 계몽주의적 성향이라 부르기도 한다.

1) 民立大學 설립운동[107]

민족교육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일제의 우려는 관공립학교 설립 기피를 낳았으며, 급증하는 지원자에 따른 수용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민족을 생각하는 청년 지식인들에 의해 사립학교나 강습소, 야학 등이 설치되었으니, 이를 '교육계몽운동'이라도 한다. 이 운동의 특징은 ①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학교 증설 ②한국인의 교육 차별 대우 철폐 ③교육 용어의 일본어 사용 중지 ④한국사 학과목 개설 요구 등이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자 추진된 것이 '민립대학교개설운동'이다.[108]

1922년 11월, 李商在·曺晩植·韓圭卨·尹致昭·金性洙·고용환 등 47인이 발기가 되어 설립한 '朝鮮民立大學期成會'는 민족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109] 민립대학기성회의(이하, 민대) 취지에 찬동한 전국 각지의 인사들은 170여 郡 800여 명이나 되었다.[110] 1923년 3월 29일, 민립대학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111] 이때 출석한 총 인원은 462명이었다.

106) 위의 글, 161쪽 참조.
107) 민립대학설립운동이 당시 청년지식인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보천교에 의해 주도된 것은 민족대학설립운동이었다. 이 둘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단지 다르게 표현된 용어일 따름이다.
1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 440쪽 참조.
109) 동아일보 1922. 11.30 참조.
110) 위 신문 1923. 3.5 참조.

이때 발표한 취지서에는 '우리의 생존과 문화의 창조와 향상에 대학의 설립이 시급하다. 이처럼 중대한 사업을 우리 민족이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며, 민족의 성원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서 민족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민족 성원의 의무라고 하였다.[112]

1923년 3월 31일에는 중앙집행위원 30인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보천교인 고용환과 주익이 포함돼 있다.[113] 이후, 고용환은 민대 제1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상무위원으로 피선되었으며,[114] 이득년은 민대 경성부 발기인 총회에서 감사원으로 선정되었다.[115] 이는 민립대학기성회운동과 보천교의 민족대학설립운동은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보천교의 발상지인 전북에 민대 발기인 수가 특히 많은 데서도 알 수가 있다.[116]

그러나 일제는 '경성제국대학령'을 발표하여 1924년 경성제대 예과(1926년에는 학부가 설치되었다.)를 설치하는 등 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저지하니, 교육계몽운동은 좌절을 맞고 말았다. 1927년 新幹會 결성으로 민족교육운동은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117]

앞에서 엄급하였듯이, 1923년 조선물산장려회 이사로 참여했던 이들 가운데 14명 이상이 민립대학기성회 이사로 참여했으며, 이들 가운데 보천교와 밀접한 인물이 5명이다.

· 이득년 : 조선교육회 발기인. 민립대학기성회 지방부집행위원(경성)

111) 위 신문 1923. 3.28 참조.
112) 위 신문 1923. 3.30 참조.
113) 위 신문 1923. 4.1 참조.
114) 위 신문 1923. 4.4 참조.
115) 위 신문 1923. 5. 19 참조.
116) 민대 발기인 수는 경성 94명, 함남 44명, 황해 39명, 그 다음이 전북 36명이다. (京高秘 第5494號, <民立大學期成會創立總會開催の件>(≪일제하사회운동사자료총서≫ 12권, 고려서림, 1922, 190~195쪽 참조.)
1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 440쪽 참조.

· 고용환 : 민립대학기성회 발기인.
· 주 익 : 조선교육회 이사. 민립대학기성회 중앙집행위원.
· 이순탁 : 민립대학기성회 발기인.
· 임경호 : 민족대학설립 추진인.

이외, 교육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보천교와 관련한 인물들은 曺晩植과 薛泰熙, 金喆壽 등이다. 이들은 모두 민립대학기성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118]

2) 보천교의 계몽주의적 성향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천교의 信行이나 組織 運動에 변화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제의 강압적인 교단 공개에 있었다. 조직의 공개와 보천교라는 명칭 등재는 교내 청년지식인 세력이 주도하여였다.

그런데, 기존의 신비주의를 부추겼던 신행은 강증산을 신앙 대상으로 한 교체였다. 이러한 신비주의적 신로에 문제를 제기한 쪽은 월곡이었고, 신앙 대상으로 강증산을 고수하고자 했던 쪽은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지식인 세력이었다. 하지만, 물산장려운동이나 민족대학 설립운동 등 소위 계몽주의적 사회경제운동은 이들 청년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기보다는, 월곡의 결정을 받아들인 방주 조직이 적주나서 일으켰다는 관점이 정확하다.

118) 강영심, <1920년대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와 성격>(≪국사관논총≫47, 1993) 참조. 앞의 논문에서 金喆壽에 대해 '전북 부안, 와세다대 정치과, 1916년 귀국, 2.8선언 가담, 사회혁명당 조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러한 이력을 가진 인물은 金綴洙이다. 그리고 물산장려운동과 관련한 金喆壽는 경상도 양산 출신으로, 물론 金綴洙와 동경 유학을 함께 하였으며, 2·8동경독립선언도 함께 했던 인물이다.(필자(편), ≪지운당-지운김철수 회고록-≫(지운기념사업회, 1991. 참조) 이 金綴洙 역시 보천교와 관련한 인물로, 앞서 언급했듯이, 보천교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각주 37) 참조).

…나 어렸을 때까지만 하여도 이곳에 유리 공장과 염색 공장이 있었다. 갓, 등(여름에 입는 옷) 등 직조 공장, 농기구 공장도 있었다. 공업이 발전해야 국민이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여, 소공장을 많이 설립하였다.…가장 큰 이유는 왜산 물품을 쓰지 않기 위해서이다. …상점과 공장은 교단이 운영했고, 교인과 그 자녀들은 기술을 익혀 생산을 담당하였다. …영등포에 약업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관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여러 번 취소되었다. 이를 추진한 인물들은 신철휘, 신홍우, 신석우 씨 등이며, 후에 이곳에 유한양행이 들어섰다.… 본시 보천교는 우리 것 찾기다. 우리 옷과 전통을 굳건히 지켜 나가기 위하여 민족대학 설립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조만식, 변영채, 조병욱, 백남운, 홍명희 등이 노력하였다. … 119)

위는 월곡의 친자의 구술이다. 대흥리는 자급자작을 위해 당시 인위적으로 만든 마을이다. 필자의 유년기까지만 하여도 면직공장과 염색공장, 갓공장, 농기구공장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당시 보천교운동에서 비롯되었음은 후에 알게 되었다. 대흥리는 井字나 丁字로 구획되었고, 도로변의 상가는 교인들에게 분양하였다. 이곳에서 생산된 가치는 교인이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보천교의 상징인 旗가 잘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보천교의 기는 井字이다. 이 井字의 밑 획을 양 쪽으로 삐치면 共 字자 되는데, 이는 보천교가 共産 社會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라는 전언도 있다. 물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당시의 교기가 경찰에 의해 압수되는 등 앞의 전언이 사실인양 재생산되었던 것이다.[120]

119) 차용남 구술(1991. 1.21). 안영승 구술(1993. 11.10)을 역시 참조함.
120) 당시 보천교는 千年王國主義(millenarianism)와 終末論的 성향을 갖고 집단공동생활을 추구하였다. 그러다가 1922년 이후에 근대적 개념의 생산공동체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공산 사회라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었으나, 본질적으로는 보천교에 대한 지역인들의 좋지 않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즉, 혹세무민하는 사교로 보천교를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들로서, 특히, 월곡을 말할 때 고도의 술수를 쓰는 사기꾼으로, 부자를 끌여들여 재산을 빼앗는 공산주의자로 인식하였던

교운동의 계몽주의적 전환은 이상호와 그의 아우 이성영, 그리고 주익, 고용환, 이득년 등 신교육을 받은 청년들의 역할이 컸다. 이들은 당시 민족을 생각하는 사회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전력의 소유자들로, 기관지 ≪보광≫이 이들에 의해 창간되었고, 당시 유력 일간지인 ≪시대일보≫ 인수 역시 이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1923년 1월경에 최초의 여성 조직인 婦人方位가 만들어 져, 여성의 지위를 일반 방주와 같게 하였다. 1924년 노동조합인 '己産組合'이 대흥리 소공장 단지에 설립되어,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교의 선전과 교도 노동자들을 결집토록 하는 등의 121) 획기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더욱 가관은 集團生産 差別分配制라는 획기적 제도의 실험이었다. 이때가 1925년 전후였다. 예컨대, 공장과 상가는 매매에 의해 점유되는 게 아닌 일종의 계약과 조건에 따른 '임대 성격'이었다.122)

보천교의 계몽주의적 운동의 지향은 ≪보광≫에도 잘 나타나 있다. 물론, 기관지를 창간하고 인쇄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계몽주의적 성향이었다. 기관지에 톨스토이의 무정항주의를 소개한다거나, 이를 강조한 것도 같은 성향이다.123) 보광지에서 엿볼 수 있는 보천교의 계몽주의적 성향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女子夜學會 設置에 관하여. 지난 5월 20일 경남 진정원 내에 普曉女子夜學를 설치하여, 目下 50명의 學生을 三部에 나누어 가정에 필

경향도 있었다. 이는 일제의 민족종교 탄압책의 하나인 '반사회 단체로의 매도'가 낳은 결과였을 수도 있다.

121) 이성영의 앞의 책 108쪽 참조. 김홍철, <일제하 증산교의 민족운동에 관한 연구>(≪증산사상연구≫14, 1988), 348쪽 참조. 그리고 당시 교인들의 전언.

122) 차용남 구술(1991. 1.1). 차용남은 당시 상가는 3년 무료 임대, 3년 후 이자 없이 본전만을 갚도록 하였다며, 그러나 상가나 공장은 교단의 소유였다고 구술하였다.

123) 鷄山山人, <甲子年을 맞이하면서>(보광 4. 1924. 3.27.), 46쪽 참조.

요한 보통 교육을 실시하는 중인데, 성적이 자못 양호하더라.124)

幼稚園 設置. …만 3세 이상 6세 미만의 유년을 모집… 圖書館 설립 계획. 소년회 조직, 진주 보천교 소년회 조직, 회원은 86명.… 少年軍 조직, 지난 6월 17일 보천교 소년 중 신체가 건강하고 의지가 견고하며 학적이 양호한 자 15명을 선발하여 소년군을 조직하고 목하 사회 奉公의 필요 과목을 연습 중이더라.… 자선음악회 연주회, 진주 보천교청년회와 진주음악연구회의 공동 주최, …수익금은 부산일보를 통하여 遭難者 유족에게 교부하여…125)

후천선경이라 함은 자유의 꽃이 란만하고 평화의 바람이 솔솔 부는 후천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외다. …대동세계 같이 태고삼황적이 있는 것도 아니오, 華胥國같이 꿈에서 본 것도 아니외다.…선천 시대와 같이 같은 사람끼리 나는 양반이다 너는 상놈이다 하는 더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살리는 일, 다시 말하면 땅속에 있는 광물이 인간에 나와서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우수운 일이 없겠지요. 그리고 배불러 욕보는 사람이나 굶어서 죽은 원귀가 없을까 합니다. 사람마다 노동하겠지만은 상품처럼 매매되는 노동자는 아니겠지요. 사람마다 교육은 받을지라도 돈 벌 목적으로 하지는 않겠지요. 아마도 봄바람 태평속에 춤추고 노래하는 즐거운 동산일 것입니다.126)

총령원 사서 高龍煥 씨가 단상에 나와서 相生이란 문제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평화가 넘치는 속에 평등의 생활을 누리는 의미의 열렬한 웅변을 했다…127)

이외, 원시공산적 생산공동체 추진과 민족대학 설립 추진 등은 교단 내 신교육을 받은 자들의 단지 요구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124) 보광 1호, 1923. 10.25., 60쪽.

125) 위 잡지 1, 60-61쪽.

126) 위 잡지 4, 41-42쪽.

127) 위 잡지 4, 70쪽.

임경호는 신교육을 받은 자도 아니요, 오히려 이상호와 대립적인 교간부였는 데도 물산장려운동과 민족대학 설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운동의 변화의 배경에는 월곡의 사회운동가적인 기질에서 찾아야 마땅할 것같다. 월곡은 동학농민전쟁 당시 부친인 정읍의 대접주 차치구를 따라 전쟁에 개입했으며, '영학당의 난'이라 부르는 '1899年 己亥 井邑農民蜂起'에도 참여하였다. 그 후, 일진회 전남북순회관을 지내는 등 당대 조직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128]

월곡에게 재산을 가지고 온 탄갈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어떤 질의가 있었다.

문 : 보천교인이 가정패물까지 모두 방매하고 가산을 탕패하니 이것이 선생의 명령이냐?

답 : 한울이 준 재산은 한울 일에 쓰면 관계 없다. [129]

여기에서 '한울'이란 사람이다. 곧, 재물이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이 사회 공동의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당시 세계사적인 특수 현상인 '千年王國說'이나 '信仰村運動'과 관련 있는 원시공산적 생산공동체운동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일제 독점 자본에의 저항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운동에 동조한 민중의 集合心性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는 결론에도 도달한다.

3) 청년지식인 세력과 보천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보천교가 철저히 휘둘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적어도 1925년경 이후에는 그렇다는 것이다. 보천교의 자치론은 시국대동단이 결성되면서 표면에 드러났다. 시국대동

128) 필자의 앞의 글(≪남민≫상) 참고.
129) 개벽 38호, 40쪽.

단의 이론은 대동주의다. 그 주의와 목적은 '대동양을 한 가족과 같이, 동인종 간에 전쟁의 참살을 피하고 西勢의 침해를 방지하여 평화 시대를 건설'에 있었다. 이 대동단의 활동은 '월곡의 대리통치설'을 낳았고, 이어, '천자등극설'로 확대되어, 일제의 의도와는 달리 민중의 대결집을 낳았다.[130] 여기에다 민족을 생각하는 청년지식인 세력이 합세를 하게 되니, 일제로서는 우려하던 상황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초창기 보천교는 민족종교로서, 개벽사상을 바탕으로 한 '새정부 건설'을 외쳤다.[131]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의 실체는 다름 아닌 '王政'이었으며, 그 성향은 '복벽주의적'이었다. 그러나 왕조의 수혜를 입은 군신들에 의해 일어난 복벽운동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기존의 구왕조의 모순과 식민지 모순을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복벽운동이라고해야 타당할,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보천교는 민족의 전통을 고스란히 지키려는 노력보다 개선적인 계몽운동에 쉽게 합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몽주의운동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양복 대신 우리의 전통 흰옷과 갓과 도포를 고집하였고, 신지식보다는 고전을 통해 민족정기를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항간에는 이를 무지몽매한 상투쟁이의 미신 놀음, 터무니 없는 예언, 미신사교 등으로 비난하였다. 이는 당시 類似宗教, 似而非宗教, 邪教라는 개념을 가지고 탄압을 가한 일제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132]

130) 보천교연혁사(상), 49(후) 참조.
131) 開闢이란, 오늘의 혼돈과 어두운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後天 시대 이상 사회가 도래하는 시대를 말한다. 특히, 구한말과 일제 시대에 동학과 여러 민족종교들은 다가올 후천의 이상 사회에서는 한반도가 그 중심이 되고 우리 민족이 그 주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후천개벽사상은 미래의 희망에 대한 우주론적 신념 체계 안에 열정적인 민족애를 담고 있다. 한 마디로, 민족이 당면한 역사의 횡포에 분연히 일어선 민족적 자기 각성의 종교적 표현이다. 우주론적 근거에서 민족적 자기 각성을 불러일으킨 사건을 이름하여 民族宗教運動이라 한다. 그 효시가 1860년 최제우가 일으킨 동학이다.(윤이흠,≪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고려한림원, 1997),12쪽)
132) 개벽 7 (1921. 1.1), 29-32쪽 참조 ; 村山智順, ≪조선의 점복과 예언≫(조선총

이와는 달리, 항간에서는, 특히 청년지식인들은 보천교운동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1923년경의 민립대학설립운동으로 대표되는 실력양성운동에 보천교가 뛰어 든 것은 보천교운동의 계몽주의적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Ⅳ. 결 론

갑오년 동학농민전쟁 이후 한국 민족종교 세력은 끝까지 저항 의식을 고취하며 투쟁을 계속하든가, 아니면 대외 투쟁을 외면하고 신비주의적 종교운동을 채택하던가, 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20년대 한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과시했던 보천교는 초창기에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을 통하여 반제 저항운동을 벌여나갔다.[133] 결과적이긴 하지만, 당시에 표방된 신비주의는 좌절과 실의에 빠진 민중들을 결집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에, 일제는 직업적 친일파를 침투시켜 교단 분열을 획책하고 조직의 약체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134] 보천교 내부의 시국대동단의 결성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일제 통감부 시대의 종교는 일본 정책에 순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135] 이는 1907년 7월에 공포한 '보안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일제는 이 보안법을 근거로 하여 천도교나 보천교의 옥외 설교를 비롯한 각종 집회를 규제하였다. 이들을 결사체의 하나로 취급했기 때문이다.[136]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보천교의 신비주의적 운동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당시 저항의 주체는 24方主나 60方主로 불리는 거대한 민중조직이었다. 이같은 조직 그 자체는 일제의 탄압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반식민지 저항운동이요, 일제의 크나큰 경계 대상이었다.

이른바 문화통치기는 외형적으로는 유화 정책이었지만 실상은 민족해방운동 전선의 분열과 그 조직의 약체화를 꾀했던 시기였다. 종교 통제 기구도 이원화시켜, 신설된 총독부 학무국 종무과에서는 공인종교로 인정을 받은 신도·불교·기독교 등을 감독하였고, 그 밖의 비공인종교로 분류된 천도교나 보천교는 총독부 경무국에서 감독토록 하였다. 그러나 앞의 기성종교는 일제에 의한 분열책과 친일화 공작으로 말미암아 약체화돼 있었으며, 내부의 민족을 생각하는 운동 세력들은 교단에서 이탈하거나 다수가 개량주의화를 꾀하였다.[137] 이때가 1923,4년경이다.

교명을 普天敎라 이름하여 등록하게 된 때는 1922년. 이때부터 신비주의적이고 복고주의적인[138] 성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부 간부들에 의해 ≪시대일보≫가 인수되었고, 기관지 ≪보광≫이 창간되었다.[139] 그리고 민족을 생각하는 청년지식인들을 대거 영입하였다. 1923년경, 민

독부近澤印刷所, 1933), 591-594쪽 참조 ; 동아일보, 1925. 1.23, 1.26 참조.

133) 윤이흠의 앞의 책 참조. 초창기 신비주의 운동으로는 신천지대망설을 바탕으로 한 천자등극론과 주송수련이 그 핵심이다.

134) 신순철, <일본의 식민지 종교정책과 불법연구회의 대응>(≪문산 김삼룡박사 고희기념특집 원불교사상≫17·18합집, 1994), 747-748쪽 참조.

135) 이현희, <일본의 문화침략정책과 그 실체 -특히 교육·종교 분야를 중심으로>(≪정신문화연구≫1985 여름), 43쪽 참조.

136) 1906년 11월 17일, 통감부령 제45호 '종교의 포교에 관한 규칙' 역시 신도, 불교, 기독교 이외 종교는 인정을 안 했다. 말하자면, 민족종교를 정치적 결사체로 인식을 하였다는 뜻이다. 당시 보천교의 보광지에도 '自敎가 정치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부분도 없지 않다. (일교인, <答客難>(보광제1호, 1923. 10. 25), 40-46쪽.)

1910. 8.25, 경찰령 제3호 '집회취체'가 발령되어 종교 활동은 더욱 억압을 받았다. 1915. 8.16, 조선총독부 부령 제83호 '포교규칙'에는 공인종교와 유사종교를 구분하여 법제화시켰다. 그러나 제15조에 의거해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 종교 유사한 단체을 인정하고 집회를 보장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137) 신순철의 앞의 글 참조.

138) 보천교의 '복고주의'는 불안한 위기의 시대에 찾는 비상구나 위안이 아니라 엄연 일본의 천황제에 대한 식민지 민족의 주체 의식의 발로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향수로 포장되는 '복고주의'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하겠다.

139) 기관지 ≪보광≫이전, ≪普天敎報≫가 제2호까지 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관지는 교 사정으로 정간되었다. (<편집여백>(보광 1호), 62쪽 참조.)

립대학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으로 대표되는 실력양성운동에 보천교가 적극 뛰어 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보천교가 계몽주의적 사회운동에 적극 뛰어든 배경에는 여러 차례의 天子登極說의 좌절로 나타난 민심 이반 현상이었다. 이러한 위기를 타결해보겠다고 나선 이들은 교단 내 신교육을 받은 청년지식인들이었다. 보천교의 계몽주의적 사회운동에로의 전환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족종교운동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한 교단내 신교육을 받은 청년지식인들이 일반 청년지식인들을 끌어들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1920년대 초반, 실력양성운동의 분화 과정에서 청년지식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민족주의 세력이 사회주의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보천교를 끌여들였을 가능성이다. 예컨대, 운동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보천교의 자금과 조직을 필요로 하는 청년지식인들이 보천교와의 연대를 모색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소위 민족주의 우파 내부의 유산자층과의 분파적 관계에 있던 청년지식인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자금과 조직을 보천교에서 구하려 하였을 가능성이다.

앞의 두 번째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몇 가지 사실로는 다음과 같다. ①조선물산장려회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민우회의 임원에 보천교인 임규와 주익이 포함돼 있다. 뒤에, 서울계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면서 이들과 민우회 내 기존의 우파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을 배제하는 민립대학기성회와 조선물산장려회가 이들에 의해 새롭게 조직되었는데, 이때, 보천교인으로 분류된 앞의 두 사람은 사회주의자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서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②이념적 갈등으로 사회주의자들이 탈퇴하게 되는 청년연합회 집행위 상임위원에 보천교인 고용환과 보천교와 밀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金喆壽가 선출되었다. 이들 역시, 후에 조직되는 민립대학기성회의 중앙집행위원으로, 조선물산장려회의 이사로 참여하게 된다. ③물산장려운동이 사실상 막을 내린 1924년경, '보천교박멸운동'을 서울계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게 된다. 이들은 아예 사무실까지 차려 놓고 보천교를 성토하였다.[140]

이것으로 보아 당시 보천교는 사회주의자, 특히 서울계 사회주의자들보다는 소위 민족주의 우파 쪽과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세 가지 가능성은 앞으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거쳐야만 논거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생존한 월곡의 친자이나 현지의 전력이 교인이었던 이들의 전언이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지 ≪산업계≫가 보천교의 지원으로 창간되었고, 조선 물산장려회와 민립대학기성회의 이사나 중앙집행원으로 보천교 간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밝혀져야 한다. 혹은, 보천교운동의 일환으로 교단 차원에서 실력양성운동에 개입을 하였는 지, 아니면 보천교가 앞의 운동에 동조하여 부분적으로 참여하였는지, 또는 교운동과는 상관 없는 개인적 차원의 참여였는 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천교의 조직 그 자체는 국권회복을 위한 전위 조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이들의 운동 양식은 당시 민립대학기성회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의 그것과 별 다를 바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운동 양태가 시기적으로 보아 보천교가 더 빨랐다는 점 등은 교운동과는 상관 없이 개인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쪽을 배제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생산 증식을 주장하는 유산자 또는 자본가들과의 분파 과정에서 청년지식인 세력이 보천교와 연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지, 당시의 청년지식인의 성향이 밝혀져야 한다. 청년지식인에 속하는 이순탁이나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金綴洙나 최팔용 등은 보천교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22년경, 실력양성운동의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산장려운동과 이 운동을 부분적으로 비판했던 사회주의운동 모두는 대중운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까지

140) 동아일보 1924. 12.26(음), 1925. 1.7(음), 9.16(음) 참조. ; 조선일보 1924. 9.23, 1925. 2.18(석), 3.6(석) 참조.

보천교의 자금과 조직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141]

식민지 하의 기대와 비난, 저항과 탄압, 聖과 俗을 넘나들던 보천교는 한 시대를 風飛한 신흥종교라기보다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되찾으려 했던 능동적이고도 대중적인 사회운동이요, 그 실체였음이 드러났다. 당시 억압된 시대 상황 아래 대다수의 민중을 조직하고 결집시킨 그 자체가 민중운동이요, 민족운동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소수 지식인 중심의 운동과는 그 방법과 지향점이 다소 달랐다 하더라도 조직을 통한 민중 결집이 일제의 경계와 탄압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당시 또다른 유형의 민족해방운동인 셈이다. 예컨대, '소수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한 가장 극명한 사례로 보천교운동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141) 당시 보천교를 강경하게 비난하고 나선 사회주의계열은 서울청년회였다. 여기에 화요파가 가세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金綴洙를 위시한 소위 상해파 사회주의계열로 분류해 볼 수 있는 최팔용 등은 보천교의 자금 지원을 받는 등 보천교와 매우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1925년 경, 민족운동의 통합 노력의 결과는 물산장려운동에 서울청년회 계통의 사회주의자들의 참여를 낳았다. 이때, 새 이사진에 보천교인들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 흥미롭다.